

하 니(R. A. HARDIE) 선교사 원산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기념

# 영적대각성운동

The Korean Methodist Spiritual Awakening Movement  
beyond 1907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영적대각성운동 위원회

# 발 간 사

감리교회 150만 성도 여러분!

한국감리교회는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영적대각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초기 감리교인들을 통하여 일어난 영적대각성운동의 유산을 계승하고 복음주의와 경건주의를 회복하므로 21세기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변화와 부흥을 실천하는 진정한 감리교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감독회의에서는 감리교회의 영적 각성을 열망하며 영적각성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중부연회에서는 연회를 전후로 권역별 7주간 연속 영적대각성 기도회와 목회자, 장로 등 약 600명이 모인 금식기도회가 진행되면서 침체되고 폐쇄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이 운동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7일에는 약 2만 2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중부연회 영적대각성 특별성회를 갖고 이 시대에 감리교인들을 불러 한국사회에 영적변화를 실현하시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영적대각성운동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에 따른 철저한 회개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거듭남과 성결한 생활, 그리고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영적부흥운동의 산물로 생겨난 감리교인(메도디스트)이라는 칭호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처럼 영적 변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망을 담아 중부연회 영적대각성운동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5개 분야 16가지 행동목표, 35가지 기본과제, 142개 실천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2년동안 중부연회에서 실천해 온 영적대각성운동의 내용을 소개하며, 영적대각성운동이 평양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2007년을 넘어 2010년까지 모든 감리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여망해 봅니다.

그 동안 영적대각성운동에 헌신해 오시며 이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수고 해주신 중부연회 영적대각성운동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8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 독 이 규 학

## - 목 차 -

### [ 영적대각성운동 ]

|    |                                        |
|----|----------------------------------------|
| 05 | 감도회의 영적각성 선언문                          |
| 07 | 영적대각성운동 경과                             |
| 08 | 영적대각성운동 향후계획                           |
| 09 | 영적대각성 월요기도회 자료                         |
| 12 | 영적대각성 특별성회 자료                          |
| 14 | 설교문 / 감리교선교 120주년 과거, 현재, 미래 - 이규학 감독  |
| 18 | 논문1 / 경건주의 대각성운동과 한국교회 - 김흥기 교수        |
| 28 | 논문2 / 선교 초기 부흥운동과 한국교회 영적각성 - 이덕주 교수   |
| 35 | 논문3 / 감리교회, 복음의 Communication - 김명구 교수 |

### 41 [ 영적대각성운동 사진자료 ]

### [ 영적대각성운동 실천계획 ]

|    |               |
|----|---------------|
| 50 | 1. 영적 대각성 기도회 |
| 57 | 2. 교회정책       |
| 69 | 3. 사회생활       |
| 76 | 4. 가정생활       |
| 84 | 5. 문화교육       |

## 감리교회의 영적 각성을 열망하며 감도회의 영적각성 선언문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누리도록 하소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올해로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은 어둠 속에 빠져 있던 이 민족을 밝혀주는 참 빛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앞세워 한국의 초대교인들은 전도와 기도에 힘썼으며 민족계몽과 나라의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축복으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의 그늘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민족 앞에 잘못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감리회가 자립 60주년 선언문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신사참배에 굴복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불의와 강압에 항변하지 못했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민족과 사회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바입니다.

오늘날 도덕적 기초가 흔들리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허물과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도화 되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국 감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철저한 회개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구령열에 불타 전도하고 참 도덕성을 회복하는 이 영적 각성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라”(호세아 12:6).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 갈 때,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고 감리교회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감리교회가 영적 각성운동에 앞장서온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도회장과 10개 연회 감독된 우리는 다시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 [ 영적대각성운동 ]

1. 감리회의 지도자 된 우리 감독들부터 경건한 생활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심한다.
2.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소박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분부대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 새로운 감독상을 수립한다.
3. 우리는 감리회의 올바른 전통을 계승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본부와 연회의 행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체감과 유대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어려움 속에 있는 미 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데 앞장선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수립하는 일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의 증거자가 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이러한 우리의 결심과 함께 이제 모든 감리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당부합니다.

1.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영적 대 각성 운동의 불길이 감리회의 온 교인, 개 교회, 지방회, 연회 그리고 본부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합시다.
2. 전도와 봉사에 앞장서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룩되는 건강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3.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민족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2005년 3월

|               |       |       |
|---------------|-------|-------|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 감독회장  | 신 경 하 |
|               | 서울연회  | 윤 연 수 |
|               | 서울남연회 | 김 충 식 |
|               | 중부연회  | 이 규 학 |
|               | 경기연회  | 최 호 순 |
|               | 중앙연회  | 권 혁 구 |
|               | 동부연회  | 박 거 중 |
|               | 충북연회  | 이 돈 하 |
|               | 남부연회  | 곽 성 영 |
|               | 충청연회  | 현 상 규 |
|               | 삼남연회  | 장 동 주 |

## [ 중부연회 영적대각성운동 경과 ]

2004. 12. 1. 이규학 감독, 중부연회 정책협의회(양평)에서 영적대각성운동 주창
2005. 3.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영적각성선언문 발표
2005. 2. 14. 50일 특별새벽기도회 공포, 50일 영적대각성운동 자료집 발간 (1차) 8주간 월요기도회 (내리교회, 총 1,623명)
2005. 5. 20. 권역별 7주간 연속기도회 (총 11,033명)
2005. 9. 1. 지방별 영적대각성 기도회(약 22개 지방) 실천방안 모색 연구발표회 3회(고양 파주 권역) 권역별 신학 강좌 5회 (연회, 강화, 고양 파주 등)
2005. 10. 28. 목회자, 장로 등 영적대각성금식기도회(강화, 약600명)
2005. 12. 15. 2006년도 정책협의회(강화) : 영적대각성운동 및 특별성회 심의
2006. 1. 5. 신년하례회 : 제65회 중부연회 영적대각성특별성회 계획 선포
2006. 2. 10. 영적대각성 운동 영상 홍보물 제작
2006. 2. 28. 이규학 감독 초청 특별성회 후원 만찬(부평교회) :후원금 5500만원
2006. 4. 17. 하디 선교사 원산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성회(약 22,000명) 영적대각성운동 실천계획서 발간 및 선포 (2차)
2006. 6. 13. 영적대각성운동 실천 공모사업
2006. 8. 영적대각성운동 자료집 발간 (3차) 영상홍보물 제작

[ 중부연회 영적대각성운동 향후 계획 ]

| 사업/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영상물제작     | ○    | -    | ○    | -    | -    |
| 자료집발간     | ○    | -    | ○    | -    | ○    |
| 홍보 및 설명회  | ○    | -    | -    | -    | -    |
| 실천공모사업    | ○    | ○    | ○    | ○    | ○    |
| 학술대회      | ○    | -    | -    | -    | -    |
| 사경회 교재 발간 | ○    | -    | -    | -    | -    |
| 목회자 금식기도회 | ○    | ○    | ○    | ○    | ○    |
| 추진기획단 구성  | ○    | -    | -    | -    | -    |
| 순회강사단 운영  | ○    | ○    | ○    | ○    | ○    |
| 연회별 특별성회  | -    | ○    | -    | ○    | -    |
| 연합특별성회    | -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64회 중부연회 및 아펜젤러 선교 120주년 기념대회  
영적대각성을 위한 월요기도회 (7주간)

- 일시 : 2005년 2/14,21,28, 3/7,14,21,28, 4/4
- 장소 : 내리교회 예루살렘성전(☎762-7771)
-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영적대각성운동 위원회

인사의 글

사랑하는 중부연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중부 연회는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열방을 깨우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새롭게 재인식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과 부활주간(2/14~4/4) 50일을 영적 대각성의 기간으로 삼고 회개와 회복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기억하고 또 역사를 반성함으로서 자랑스러운 중부연회 교회로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을 통해 온 중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를 것을 확신합니다.

2005년 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이 규 학 감독

영적대각성운동 실천방법

1. 기도 운동
- ① 교회는 2월 14일(월)을 기점으로 50일 영적 대 각성 기도운동을 시작한다.
  - ② 영적 대각성 7주간을 매주 기도제목을 정하여 전교회가 일치된 새벽기도를 드린다.
    - 1주 :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 2주 :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 3주 : 교회가 함께 회개하는 기도
    - 4주 : 사회-불평등과 타락-문화를 회개하는 주간
    - 5주 : 혼탁한 정치-경제를 회개하는 주간
    - 6주 : 예수의 고난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주간
    - 7주 : 새 창조를 기뻐-선포하는 주간



[ 영적대각성운동 ]

2. 말씀 운동
  - 전교인 신약성경 통독 운동을 실시한다.
3. 전도 운동
  - 1:1:2 전도운동(1인 1일 20분 기도하기, 1인 어른 1명, 학생 1명, 어린이 2명전도)
  - ① 매월 2째주는 전교인 노방 전도의 날, 4째주는 전교인 거리 청소의 날, 매주 화요일은 화요 전도대, 매월 3째주 월, 화요일은 인천시 복음화 전도축제로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 ② 영적 대각성 7주 동안 각 속회는 5단계의 전도소그룹 운동을 진행한다.
    - 1주 : 전도 대상자 파악, 잃은 양 찾기
    - 2주 : 기도 짝을 정하고 기도카드 작성 (VIP 카드)
    - 3주 : 일대일 관계 세우기 1
    - 4주 : 일대일 관계 세우기 2
    - 5주 : 소그룹에서 관계 세우기
    - 6주 : 속회 초청 준비
    - 7주 : 속회 초청 잔치
4. 경건 운동
  - 지금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요일별 회개의 실천을 통해 경건운동을 실천한다.
  - ① 주일(가족 사랑의 날)
    - 부부, 부모님과 자녀 관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랑 표현하기
    -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는 말 5회 이상하기
  - ② 월요일(생명회복의 날)
    -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합성세제, 샴푸, 조미료 사용하지 않기
  - ③ 화요일(정직과 준법의 날)
    - 공중도덕 지키기, 교통 법규 지키기, 교통 양보하기
    - 불의한 일(거짓말) 하지 않기
  - ④ 수요일(T. V 안 보는 날)
    - 하루 동안 T. V 코드를 뽑아 놓기
  - ⑤ 목요일(구제의 날)
    - 가난한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 기도하기
    -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절인이나 장애인 만나면 적극적으로 돕기
    - ARS 전화하기
- ⑥ 금요일(칭찬과 감사의 날)
  - 가족, 친구, 이웃들 사이에 파괴된 관계 회복시키기(먼저 사과하기)
  - 이웃집 사람들, 학교, 직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 감사합니다. 말 하루 5번 이상하기
  - 1명 이상 칭찬하고 축복하기

⑦ 토요일(금식하기)
  - 토요일 하루, 혹은 1끼라도 금식하여 구제헌금 드리기
- 7주간 월요기도회
- | 구 분 | 2월 14일                 | 2월 28일                   | 3월 14일               | 3월 28일                 |
|-----|------------------------|--------------------------|----------------------|------------------------|
| 사 회 | 성기문 감리사                | 고인섭 감리사                  | 조경열 감리사              | 윤백진감리사                 |
| 기 도 | 송현순 장로<br>(연희남선교회연합회장) | 손재원 권사<br>(연희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 임동수 장로<br>(연희협동총무)   | 김종섭 장로<br>(인천서지방평신도총무) |
| 성 경 | 마태복음 5:13-16           | 누가복음 12:49               | 누가복음 16:19-31        |                        |
| 특 송 | 내리연합성가대                | 부평교회성가대                  | 인천성산교회성가대            | 주안교회성가대                |
| 제 목 | “세상의 빛이 되라”            | “꼭 필요한 성령의 불”            | “이것을 기억하라”           |                        |
| 강 사 | 최세웅 감독                 | 홍은파 목사                   | 최상용 목사               | 한상호 목사                 |
| 축 도 | 최세웅 감독                 | 홍은파 목사                   | 최상용 목사               | 한상호 목사                 |
| 구 분 | 2월 21일                 | 3월 7일                    | 3월 21일               | 4월 4일                  |
| 사 회 | 박종화감리사                 | 정찬만 감리사                  | 황요한 감리사              | 신용대감리사                 |
| 기 도 | 김계순장로<br>(연희여선교회연합회장)  | 이일성 장로<br>(연희장로연합회장)     | 김지탁 장로<br>(교회학교연합회장) | 김대성 장로<br>(시흥북지방평신도총무) |
| 성 경 | 에베소서 2:1-10            | 마가복음 9:17-29             | 마태복음 28:7-10         | 하박국 3:2                |
| 특 송 | 송의교회성가대                | 신현교회성가대                  | 인천대은교회성가대            | 인천제일교회성가대              |
| 제 목 | “성령으로 새롭게”             | “능력기도”                   | “그곳으로 가야한다”          | “부흥”                   |
| 강 사 | 권용각 감독                 | 배용두 목사                   | 전명구 목사               | 이규학 감독                 |
| 축 도 | 권용각 감독                 | 배용두 목사                   | 전명구 목사               | 이규학 감독                 |
- 10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 영적대각성운동 - 11

《 하 디(R.A.Hardie)선교사 원산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

## 제65회 중부연회 영적 대각성 특별성회 순서

오후 2시

사회 : 윤원영 감리사

### 경배와 찬양

예수 전도단 ..... 특별출연 : 혜은이 권사, 이혁재 집사

### 환영과 감사

성회 선언 ..... 이 규 학 감독  
영상상영 ..... 영적대각성 운동 위원회  
감사찬송 ..... [ 36장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 다함께 기립

1.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2.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잊을 죄인아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 이 지구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4. 주 믿는 성도 다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 도 ..... 오철환장로(남선교회), 강희춘 장로(여선교회)  
성경봉독 ..... [ 사도행전 2:17-12 ] ..... 나정주 권사(청장년회)  
특별찬양 ..... 숭의교회찬양대  
설 교 ..... [ 영적부흥의 길 ] ..... 신 경 하 감독회장  
내빈소개 ..... 이 규 학 감독  
축 사 ..... 김 외 식 총장(감리교신학대학)

### 속죄와 중보

찬 송 ..... [ 338장 / 천부여 의지 없어서 ] ..... 다 같 이

1.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2.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3. 나 예수 의지 하므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후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속죄의식 ..... 이 규 학 감독 / 29개 지방 감리사  
[ 낭송 / 하관철 목사, 고혜숙 청년회장 ]

### 축복과 헌신

성금전달 ..... 최세웅 감독, 이종복 감독, 권용각 감독, 전양철 감독

초청 단체 - 영화학교, 인천성서신학원, 장애우, 벽제자활원, 미화공무원,  
경찰·공무원, 분단의 희생자, 농민단체, 생명나눔운동 등

축복기도 ..... 이종복 감독 : 사회정의, 윤리, 가정, 문화, 환경  
권용각 감독 : 정치와 국가경제  
전양철 감독 : 성회 참석 회중과 특별 초청 이웃들

축복말씀 ..... 이 호 문 감독(숭의교회)  
특별찬송 ..... 서 보 란 집사(동산교회)  
헌 금 ..... 헌금위원(부평교회, 주안교회)  
헌금기도 ..... 이 호 문 감독(숭의교회)

### 변화와 부흥

비전 선포 ..... 이 규 학 감독  
통성기도 ..... 이 규 학 감독/감리사

이진선감리사 : 성령의 임재/하나님의 통치  
이용률감리사 : 교회 지도자와 교우들의 성결 / 교회의 사명  
박기현감리사 : 감리교회의 변화와 부흥 / 영적대각성 운동의 활성화  
세계감리교대회 성공

영적대각성운동 실천계획 선포 ..... 이 규 학 감독  
신 기 식 감리사(영적대각성운동위원장)

인사말씀 ..... 이 진 수 목사(상임진행위원장/동산교회)  
결단찬송 ..... [ 400장 /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 ..... 다같이/일어서서

1.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2.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굳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3. 산과 들과 바다 가는곳마다 주의 굳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세상에 전하세
  4.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굳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세
- [후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축 도 ..... 최 세 웅 감독  
폐회선언 ..... 이 규 학 감독

『감리교 선교 120주년 과거, 현재, 미래』 - 2004. 12. 연회 정책협의회 설교문

이 규 학 감독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

먼저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 개인,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함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신앙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 속에서 먼저 개신교 120년 역사를 살펴보면(1885년 4월 인천으로 아펜젤러가 들어온 것으로 볼 때), 그 당시 상황은 이미 10년 전 개항과 더불어 큰 격동의 시기였는데 이 당시 임오군란, 한미수교, 명성황후 시해사건, 독립협회 사건들이 20년 사이에 다 일어났다.

강대국의 침략과 일본의 강요로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되었다. 그것은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고 그들은 방향을 정할 수 없도록 넘쳐 흐르고 있었다. 개항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강대국의 강요로 홍수같이 밀려왔을 때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로 가치관을 상실하게 됐다.

바로 이럴 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당시 예수그리스도의 증거는 듣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마음 밭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각각 달랐다.

그런데 당시 두 개의 계층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한 부류는 신문화(서구 기독교 국가처럼)로, 다른 부류는 삶의 희망을 거는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기독교를 문화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는 악세사리에 불과하지만 기독교를 희망의 근거로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은 삶의 현장과 관련되었다. 초대교회 기독교는 고난의 현장에서 씨를 뿌렸다. 한국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였다. 아펜젤러가 오기 전 1876년에 우리 한국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그때 최초로 출애굽기부터 번역됐다. 초기 설교는 출애굽기, 아모스,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이용됐다. 그 이유는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노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가 급히 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1895년과 1910년 국권을 상실했던 시대이다. 사람들이 왜 교회로 들어왔는가? 혹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관리들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은 그 당시 문둥병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 민족은 교회가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나는 Revival Movement(부흥운동)으로 보지 않고 Spiritual Movement(영적운동)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령운동은 교회신앙운동이고 회개운동이었지 숫자를 얻기 위한 운동은 아니었다.

왜 서울, 부산, 대전, 대구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원산 평양에서 일어났을까?

원산은 조선조 500년 역사 속에서 유배당한 곳이고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었던 감리교 선교지역이었다. 이들은 민족적인 한을 품고 산 사람들이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원산에서 하디선교사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이 평양으로 옮겨져서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교회 신앙운동이요 회개운동이었다. 이때 교회 회개의 통성기도 때문에 교회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미래에 대해 내 마음을 여는 것, 미래에 대해 개방적인 것이 바로 회개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바로 영적인 힘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회개운동이다. 1910년대에 한국민족이 투쟁운동을 즐기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성령운동이 원동력이 되어 가능하였고 이것으로 꽃피운 것이 3.1운동이다. 만약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3.1운동은 불가능하였다. 독립선언 33명중의 7명이 우리 감리교인이었다.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죽어나올 때 손톱이 하나도 없었고 시체가 여섯 토막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결실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1910년과 1919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름답게 빛난 시기이다. 이때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되었다. 교인수의 증가를 목적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사명을 다할 때 교인이 자연스럽게 증가됐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인들의 삶의 목적과 Non-크리스천의 삶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선교과제가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분리된 것이 1920년대부터다. 1925년 공산당이 조직되고 노동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가 갈등과 대립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8년 신사참배에 문제가 일어났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여기에 다 동조를 했다. 그러나 총회나 연회석상에 어느 교파도 사죄한 적이 없다. 이에 비해 독일교회는 슈트트카르트 선언을 통해서 나치하의 잘못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교회는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역사의 격랑을 헤쳐 왔다.

지난 120년 한국교회 선교역사 속에는 다섯 번 큰 부흥의 주기가 있었다.

첫째는 1895년 전란의 계기로 교인수가 성장했다. 동학농민혁명, 명성황후 시해사건,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교회가 부흥되었고,



둘째는 1907년 대부흥운동의 계기로 1년에 증가율이 평균 200%씩 증가됐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4년 러일전쟁 등으로 개화의지가 일어났고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교회로 몰려왔다.

세째는 3.1운동여파로 전후 5년간 교인수가 9만 명이 증가됐다. 감옥에서 나와 모두 교회로 왔다.

넷째는 1953년 휴전과 더불어 교회가 부흥되었다. 1925년 후 20년 동안은 교인 증가가 없었다. 1950년대에 와서 6.25전쟁 휴전이후 교인이 증가되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분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이때에 세례 교인이 100%증가됐고 6.25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며 한편으로는 신사참배와 에큐메니칼 문제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섯째로 1970년대 정치현실과 경제성장 외중에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4.19와 5.16이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전후해서 급성장했다. 이때 정치 현실은 국민을 긴장시킨 공포분위기였으며 삼선개헌, 비상계엄, 긴급조치로 표현될 수 있다. 공업화로 경제가 급성장했으나 물가가 급등하고 분배 불균형, 권력과 금융특혜, 요행심리가 있었고 도덕적 아노미현상이 일어났으며 공동체를 찾아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새신자가 줄이어 환영하고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다. 또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엑스포로 74, 세계복음화성회, CCC 전도대회 이런 큰 대형 집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런 개신교 역사속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 볼 수도 있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부흥된 한국교회가 1990년도에 들어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오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다.

목회자들이 기술적인 목회를 선호했고 예전에 기도하며 은혜 받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봄가을로 관광하고 놀러 다니면서 재미있는 목회에 치중했다.

둘째는 마이카! 자동차가 생기고 난후부터 교회출석이 불균형 하게 되었고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 문광부 통계에서 900만에서 1200만까지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사에 보면 고려의 국시가 불교였고 불교인구가 4분의 1이었다. 수도 개경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 중에 부녀자를 노략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도였다.

오늘 한국교회가 90년대 와서 IMF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옷 로비사건, 대형 정치적 비리사건, 대교회 비리사건 등에 모두 기독교인이 관련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기술적인 목회를 선호한 것, 마이카문제, 교회 세속화, 신학교 대학교수 혹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는 풍조,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거쳐가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되는 일치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교파를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라 각 교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야 되고 또 교단 안에서도 갈라지지 말고 일치 연합하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인쟁탈전을 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며 윤리적 성숙이 일어나야 영적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세째는 이 시대에 빌딩마다 교회를 하나씩 많이 준 것은 연합하여 세계 선교를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이며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세가지다.

네째는 개인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교의 장을 확보하기위해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한다.

다섯째는 영성회복운동이다. 영적부흥운동이 일어나야한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세속화 되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 때가 바로 다시 한 번 교회가 부흥될 때이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안까지 들어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타락하고 오염된 문화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양무리를 알뜰하게 살필 때에 오히려 교회가 깨끗해지고 진실해지며 건강해지고 성령이 폭발하는 체험이 일어나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내년 4월 5일이면 120주년인데 이번 120주년을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폭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요한 웨슬레 회심 기간을 통해서 개교회가 부흥된 것을 지방회가 지방축제로, 전도축제로 열어서 개교회 부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 10월에 가서 우리 감리교 전체가 모여서 지난번 광주대회와 같이, 광주대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의 단합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의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몰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때가 우리의 단결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령이 역사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9,10월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든지 서울 혹은 대구에서 하든지 우리 감리교 대 영적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300만 운동!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는 될 수 없다. 지난 12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영적부흥운동을 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했지 숫자를 채우려할 때 부흥이 된 것이 아니었다.

중부연회 900여 교회와 1500여 교역자 그리고 34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상 앞에 우뚝서야 한다. 이제 변화와 부흥을 실천하는 웨슬리의 후예들이 성령의 체험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불길을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

## 경건주의 대각성운동과 한국교회

김 홍 기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경건주의는 한국교회나 미주한인교회 주류(Mainline)를 형성한 신학으로 평신도들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 100년 역사를 일관성 있게 지배하여 온 경건주의적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건주의적 대각성운동의 독일적 형태, 영국적 형태, 미국적 형태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그것이 한국교회 경건주의 부흥운동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토착화되었는지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공헌과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평신도들의 경건주의적 부흥운동이 보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I.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일반적인 특징

#### 1. 체험적·감성적 신앙 강조

의인화(justification by faith)보다는 거듭남(rebirth)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문자(letter)보다는 영(spirit)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의 문자를 지성적으로 탐구하여 믿는 것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감성적 신앙을 강조한다.

이러한 체험적 신앙운동은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protestant orthodoxism)가 지나치게 스콜라주의적 지성적 성격을 띠게 되고, 독일 합리주의(rationalism) 철학운동이 지나치게 이성적 성격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 2. 개인구원 강조(individual salvation)

경건주의는 본래 개인구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한다. 초기 경건주의자들은 “인격의 변화를 통한 세계의 변화”(the change of the world through the change of persons)를 강조하였는데 그 슬로건의 핵심은 내면적 인격의 변화(the change of persons)에 있다. 우선 내면적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면 세계적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들은 내면적 인격적 영적 변혁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역사적 세계적 변화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웨슬리나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속에서는 사회적 성화운동(social sanctification)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사회복음운동(social gospel movement)에 영향을 주기도하였다.

#### 3. 내세 지향적 관심(otherworldly concern)

경건주의는 내세에 얻게 될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강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관심 갖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지상에서의 하나님나라의 확장에는 무관심하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보다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탈역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 4. 이원론적 사고(dualistic thinking)

저세상적 피안적 관심은 자연히 이원론적 사고와 연결된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도식의

로 이해한다.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되기 위한 금욕주의적 경건(ascetic piety)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영지주의적(Gnosticism)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

#### 5. 비정치화

루터의 두 왕국론에 영향 받은 경건주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저세상적 이원론적 천국관이 합쳐져서 교회를 비정치화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비정치화는 히틀러의 파시즘에 어용화되거나, 한국교인들로 하여금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비신앙적 운동으로 이해하게 하였고, 해방 후 군사독재 정권에도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였다.

#### 6. 선교적 열정(passion for mission)

경건주의 부흥운동은 선교적 열심으로 불붙게 하였다. 전 세계에 해외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열정이 18, 19, 20세기 동안 경건주의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천년 교회사 속에서 가장 많은 해외선교사를 만든 신학이 경건주의다.

#### 7. 평신도운동(lay movement)

경건주의는 평신도들을 잠에서 깨게 하는 운동이기도 하였다. 성직자만이 설교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설교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평신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도 경건주의 영향이다.

#### 8. 소규모 영성훈련 운동

경건주의운동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운동’(ecclesiola in ecclesia)이었다. 예배후 따로 모여서 설교에 대하여 토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영성을 훈련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의 속회나 구역예배 혹은 캠퍼스 성경공부모임은 모두 이런 경건주의운동에서 발전된 것이다.

### II. 독일의 경건주의 부흥운동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Protestant Orthodoxism)가 스콜라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성주의적 교리를 확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루터가 강조하였던 하나님과 성도간의 생명력인 관계가 상실되어 가게 되었다. 평신도들은 수동적인 성만찬 참여와 수동적인 설교 듣기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죽어버린 정통주의’(dead orthodoxy)에 대한 강한 도전으로 종교경험과 감성적 뜨거움과 금욕주의적 태도를 가진 경건주의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교리에 반대되는 생명(life verse doctrine), 사무적인 것에 반대되는 영적인 것(spirit verse office), 경건의 모양에 반대되는 경건의 능력(power verse appearance)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시도한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경건주의는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과 오순절운동(Pentecostalism) 혹은 은사갱신운동(Charismatic Renewal Movement) 사이의 다리를 놓는 운동이었다. 경건주의는 밖에서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다가오는 은총(imputation: extra nos), 즉 의인화를 강조하면서도 거듭남(rebirth), 즉 우리의 본성마저도 변혁시켜 가는 은총(impartment: in nobis)을 더욱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수평적, 본성적 성화(sanctification)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독일 루터란(Lutheran) 경건주의자들(Spener, Francke, Zinzendorf) 보다 영국경건주의자 웨슬리(John Wesley)에게서 이다. 스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 ~ 1705)는 바젤과 제네바에서 교육받을 때는 칼빈적인 개혁교회신학에 심취하였었고, 스트라스버그에 와서 교육받을 때는 주의 깊게 루터의 신학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영적 체험과 금욕주의적 경건을 강조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성주의 신앙에 반대하는 영성운동을 전개하는 경건주의의 시조가 되었다.

스페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운동’(ecclesiola in ecclesia 혹은 Collegia Pietatis)을 전개하였다. 1670년부터 주일예배 후에 스페너의 집에서 계속 작은 모임을 가졌는데, 그 주일 설교에 대한 토론과 경건문학 작품을 편집하는 일을 하였다. 1675년 이후부터는 그들은 오직 성경만 사용하였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각 개개 크리스천 속에 경건하고 친근한 우정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독교를 더 많이 배우게 되며 사랑의 불이 점점 더 그들 속에 뜨겁게 불붙게 되었다.

스페너에게서는 말씀(문자)보다 성령(영)이 더욱 강조된다. 스페너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후 3:6),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고전 1:12) 라는 말씀들을 강조한다. 의인화보다는 거듭남을 더욱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신앙이나 의인화 신학보다는 영적 체험을 더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영성에 가깝다.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 ~ 1727)는 기본적으로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나타난 신앙 서술에 찬성하였으나, 보다 더 영적 경험과 경건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영적 경험을 가진 뒤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의 주석적, 경험적 강의는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그를 좋아했고 학생들은 경건주의의 이원론적 경건생활과 영적 관심에 매료되어, 자기들의 전공과목 공부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과 선교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1694년 경건주의 대학교인 할레대학교(University of Halle)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선교 지망생이 되어 18, 19, 20세기 세계 선교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헌신하게 되었다.

진젠도르프(Nikolas Ludwig Zinzendorf: 1700-1760)는 프랑케가 세운 고등학교와 할레대학교를 다녔다. 30년 전쟁 때 보헤미아에서 피난 온 형제들에게 자기 소유의 땅 삭소니의 헤른후트(Herrnhut of Saxony)를 내어 주면서 그들과 함께 경건운동을 하다가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형제들의 출신지역 모라비아의 이름을 따서 모라비안(Moravian)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 Ⅲ. 영국의 경건주의 부흥운동

회심 이전의 웨슬리는 종교개혁 신앙 이전의 루터처럼 많은 선행과 공적을 쌓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기 를 열망하다가 루터처럼 철저히 절망하게 되었다. 1729년 11월에 옥스포드대학교 내에 신성구락부(Holy Club)를 만들었다. 1732년부터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일주일에 1~2회씩 감옥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사람들을 방문하여 구제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웨슬리는 오직 한 책의

사람으로 성경을 사랑하였고, 신성구락부는 “성경별레,” 혹은 “성경 크리스천”(Bible Christians)이란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으로 오가는 항해에서 두 번씩이나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떨었으나 그 때마다 찬송과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모라비안 평신도들의 신앙 자세에 크게 자극 받았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가운데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는 올더스게이트 거리(Aldersgate Street) 사건을 체험하였다. 이 체험 이후로 웨슬리는 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assentia)으로 구원 얻기를 열망하였으나 신뢰하는 믿음(fiducia)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 날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1739년 웨슬리는 브리스톨의 시장과 거리와 빈들과 하이웨이 등에서 옥외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수만의 광부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하던 일도 중지하고 밭을 잃고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그들의 불안한 심적 갈등을 웨슬리의 설교로 치유받고 통성기도와 찬양으로 부흥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영국성공회 감독이 영국성공회법이 금하는 옥외설교를 왜 하느냐고 물을 때 웨슬리는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All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그의 설교장단은 시장, 배의 갑판, 거름더미 혹은 바다해변 같은 곳이었다. 그의 설교 강단의 지붕은 푸른 하늘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가 옥외설교에서 사용한 성경은 작고 찢어진 포켓용 성경이었다.

웨슬리는 런던으로 돌아간 이 후, 약 1만 4천의 무리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롭다하심과 성화와 구속을 주신 분임을 설교하였다. 주일에 웨슬리는 어퍼 무어필즈(Upper Moorfields)로 설교하러 갔다. 런던사람들이 최고의 옷을 입고 행복한 무드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곳에 이른 아침 오전 7:00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7천명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오후 5:00에는 케닝톤 공원(Kennington)에 1만 5천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다.

그곳은 무어필즈와는 대조적인 곳으로서 주중에 죄인들이 목매들려 처형당하는 곳이었다. 웨슬리는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였다: “나를 보라. 이 생의 마지막날에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는 정죄나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주의 깊은 말씀, 아주 긴박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그의 설교를 들을 때, 그를 바라볼 때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고상한 곳도, 가장 추한 곳도, 돌계단도, 사형장도 모두 그의 설교 장소가 되었다. 그는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갔다.

1740년 웨슬리가 없는 동안 평신도 맥스필드(Thomas Maxfield)가 설교함으로써 그 동안 1738년부터 일어난 평신도 설교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수잔나가 웨슬리에게 그들의 설교적 소명에 대해 확신시켜 주었다.

1741년 연합 신도회 안에서의 영성훈련과 양육의 기본적 수단이 되는 ?참회 밴드?(penitential bands)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앞서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는 감리교도들이 되었다. 그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741년 4월부터 매달 보름 경에 모이는 “철야기도회”(watch night services)를 시작하였다. 웨슬리가 한 시간 정도 설교를 하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정이 넘어서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1741년 5월 12명의 회원들이 병자들을 방문하는 “병자를 위한 방문자들”(visitors of the sick)을 조직화하였다.

1741년부터 과거 옥스퍼드 시절에 실천했던 교도소 방문선교를 다시 부활시켰는데, 주로 사형수들에게 상담과 기도와 설교를 함으로써 영생을 확신시켜 주었다. 1741년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자선 설교”(charity sermon)를 시작하였다.

1742년 5월 30일 웨일즈(Wales)를 넘어서 옥크셔를 방문하고 중북부로 확장해 가는 중 뉴캐슬(Newcastle)에 이르러 고아원을 건립하는 등 목회하기 시작하였다.

1743년 2월 뉴캐슬로 올라가 복음으로 살지 않는 회원들 64명을 뉴캐슬신도회로부터 제명시켰고(남을 저주하는 사람 2명,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 2명, 술취하는 사람 17명, 아내를 때리는 사람 1명,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3명, 악한 말을 하는 사람 4명, 게으른 사람 1명, 경박하고 주의성 없는 사람 29명), 이를 후에 “연합신도회의 성격, 계획과 일반적 규칙”(The Nature, Design, and General Rules of the United Societies)을 만들었는데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 원하는 사람과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을 참 감리교도로 해석하였다.

1744년 첫 연회(Annual Conference)가 시작하였다. 1748년 웨슬리는 '나는 나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지 않는 한 영국 국교회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의 인생 말년까지 웨슬리는 국교회에 대한 충성을 확인했다.

1784년에 있었던 두 번째 주요한 사건은 그 해 9월1일과 2일에 있었던 미국 선교를 위한 성직임명식이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영국성공회 목사들은 전쟁 중에 대책 없이 미국을 떠났다. 성례전을 집행할 자격을 갖춘 성직자들의 부족은 미리부터 인식되어 오던 일이었다. 1784년 웨슬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여러 해 전 로드 킹(Lord King)의 『초대 교회에 관하여』를 통해 웨슬리는 주교와 사제가 똑같은 지위이며 결과적으로 성례전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됨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성공회 사제로 이미 안수받은 토마스 콕에게 감리사(superintendent) 안수를 베풀었고, 콕은 프랜시스 애즈버리(Mr Francis Asbury)를 북아메리카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연합감독(Joint Superintendents)으로 임명했다. .

1787년에는 그동안 남자들만 평신도설교가(lay preacher)로 임명하였던 전통을 깨고, 마침내 여성설교가들이 공식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감리교회의 운동에 동참하였던 영국성공회 사제는 6명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설교가로 세운 것이다. 웨슬리는 여성 지도력에 대하여 어떤 문제를 느끼고 의문이 있었으나, 결국 감리교 내에서의 여성 지도력을 허락하도록 결단하였다. 이렇게 평

범한 사람과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한 것은 웨슬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1741년에는 연합신도회(united society)가 900개나 있었고, 1743년에는 연합신도회가 2,200개나 있었다. 특히 모든 영국이 순회교구(circuit)로 나뉘어지고, 평신도 설교가들이 순회하면서 설교하게 되었다.

성결과 사랑의 모든 열매들이 맺혔다. 깊은 회개, 강한 믿음, 뜨거운 사랑, 흠 없는 성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시고, 악한 자들을 갱신시키며, 덕스러운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었다. 영적 부흥운동이 웨슬리의 설교와 가르침 아래서 반 세기 동안에 확장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몇몇 안수받은 교역자들이 부흥운동을 도왔고 이끌고 갔으나 그러나 대부분은 평신도들에 의해 발전한 운동이 감리교회부흥운동이었다.

웨슬리는 독특한 평신도설교가(lay preacher)제도, 순회설교제도(circuit rider) 등을 활용하였고, 월1회 철야기도회, 매일의 새벽기도회, 주1회 목요일의 속회(class meeting), 주 2-3회의 조모임(band meeting), 애찬회(lovefeast) 그리고 찬송가 보급 등을 통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또한 웨슬리의 성화운동은 사회적 성화운동(social sanctification)으로 확산되어 인류최초의 노동조합운동(광부, 농부, 산업노동자), 노예제도 철폐운동, 교도소제도 개혁운동, 여성해방운동(여성설교자 임명), 경제적 나눔과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 실현과 희년사회의 실현을 희망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희년사상은 그의 완전성화론(perfection: entire sanctification)에서 나왔다. 그의 완전이해는 개인적 차원의 완전과 사회적 차원의 완전을 의미한다. 완전한 성화는 신적 형상을 회복하고 신적 형상에 참여하는 제2의 복으로 간주하였다. 마 5:48, 고후 7:2, 빌 3:12, 살전 5:23, 히 12:23, 요일 4:18 등에서 완전교리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 완전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완전성결(kadosh, hagios)과 완전사랑이다.

## IV. 미국의 경건주의 부흥운동:

### 1. 제1차 대각성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 Movement)

제1차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는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와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이다. 윗필드는 영국에서 웨슬리와 함께 옥스포드대학교 안에서 신성구락부(holy club)운동을 전개하였던 감리교도(Methodist)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칼빈주의자 에드워드와 함께 연대하여 미국 대각성운동의 불을 붙이면서 그의 영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웨슬리와 결별한 후 1740년 7월 미국 조지아주 찰스턴(Charlston, Georgia)으로 설교하러 가게 되었다.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이르기까지 대부흥의 불을 붙이던 중 1740년 10월 노어스햄턴(Northampton)에서 에드워드를 만나게 되었다. 에드워드의 교회를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방문하였는데, 주일 아침 윗필드의 설교시간 내내 에드워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에드워즈는 이 대각성운동의 개척자로서 이미 1734년부터 1738년 사이에 노어스햄턴에 신앙부흥을 일으켰는데, 윗필드에 의해 더욱 불붙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가 목회하던 교회를 맡으면서 신앙 의인화(justification by faith)를 설교하면서 그 지역의 영적 자극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미국 성도들에게 천년왕국적 희망(millennial hope)을 제시한 부흥사였다. 그는 칼빈적 신정정치 정신에 입각하여 이 미국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늘나라와 같이 발전할 것임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조용하고도 학구적인 설교가 미국 신도들을 통회자복 시키고 뜨거운 영성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칼빈신학이면서도 웨슬리적 자유주의가 한 면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1754년에 쓴 『예정과 자유의지』(Election and Free Will)에서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을 말하면서도 이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은 인간의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은총이 역사할 때 인간의지가 움직이고 응답할 수 있다는 웨슬리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자유의지』(Freedom of Will)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곧 선택된 자의 실제적 구원을 주장한다. 타락의 가능성을 말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간의 책임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지는 자유로운 결단의 인간의 의지라기보다(self-determining will)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도덕적 성화를 실천하는 도덕적 수행(moral agency)의 자유의지이다.

## 2. 제2차 대각성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

제2차 대각성운동은 제1차 대각성운동 때처럼 순회설교를 통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체교회의 담임목회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제2차 대각성운동은 1797년에서 1850년 사이에 일어났다. ‘단순한 복음진리’(plain gospel truths)를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이다. 제1차 때보다 더 제2차 때는 더욱 강한 도덕적 개혁, 사회적 성화운동이 전개되었고, 선교운동도 조직적인 선교회를 구성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제2차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들은 역시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이었고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들이었음이 특징적이다. 에드워드의 외손자 티모티 드와이트(Timothy Dwight: 1752-1817)는 예일대학을 졸업하였고 예일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신학자로서 ‘뉴해븐신학’(New Haven)의 지도자였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드워드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다니엘 테일러(Nathaniel Tayler: 1786-1838)는 뉴해븐의 제일교회(New Haven's First Church)를 훌륭하게 목회하였고 예일신학교의 신학교수로 일하였다. 그의 신학은 합리적인 부흥신학(reasonable revival theology)으로 발전하였다.

찰스 피니(Charles Grandson Finney: 1792-1875)는 부흥운동이 서부쪽으로 확산되어 가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the father of modern revivalism)가 되었다. 피니는 워렌(Warren, Connecticut)에서 태어나 법학을 공부하고 1818년부터 뉴욕 아담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거기서 그는 젊은 장로교 목사 게일(George W. Gale)에게 영향 받아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던 중에 1821년 영혼이 흔들리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정규 신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교가로서의 소명을 받았고, 설교가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의 설교는 거칠고, 직접적이며, 능력 있고 인기를 끄는 매력

이 있었다. 지역신문이 그의 능력 있는 설교에 대하여 보도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그는 1835년 새로 시작된 오벌린대학(Oberlin College)의 신학교수직을 수락하였고, 마침내 1851년부터 1866년까지 총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부흥운동 메시지와는 좀더 다르게 좀더 웨슬리적으로 선포하였다. 지금까지 부흥운동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웨슬리적 자유의지를 칼빈적 예정과 접목시키는 데 그쳤다면, 피니는 칼빈적 사회성화의 요소를 강조할 뿐 아니라 웨슬리적 완전교리(entire sanctification)를 강조하는 완전주의(perfectionism)신봉자가 되었고 그 완전성화를 사회 속에서도 실현하는 운동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제2차 대각성운동의 차원을 한 단계 더욱 높여 주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는 웨슬리처럼 과감하게 여성설교도 허용하였고, 오벌린대학에서 최초로 흑인을 대학생으로 받아들였으며,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개혁교회신학전통(the Reformed theological tradition)의 영향력 있는 개혁자가 되었다.

## V. 한국교회사 속에 나타난 경건주의 부흥운동: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한 신앙유형은 근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신정통주의도, 청교도주의도, 오순절주의도 아닌 경건주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속회나 구역예배, 저세상적 개인구원, 선교적 열정, 부흥회나 사경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급속도로 부흥 발전하여 온 한국교회는 그것들을 1907년의 경건주의적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그러한 경건주의적 신앙유형을 배웠던 것이다. 런던 타임즈의 세실경(Sir. Cecil)도 평양 장대현교회 집회를 웨슬리적 경건주의 부흥회라고 비유하고 있다. 웨슬리의 일기에 나타난 부흥운동의 현상과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현상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최초의 장로교선교사 언더우드 역시 감리교적 경건주의 유형의 신앙의 소유자였다. 언더우드는 신학생 시절부터 구세군운동에 참여하여 열정적인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꺅꺅 소리 지르는 감리교도”(roaring Methodist) 혹은 “장로교선교부의 감리교 설교가”(the Methodist Preacher of the Presbyterian Mission)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경건주의 유형의 선교사였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 개신교사를 분석해 보면 1885-1906년까지는 선교사들의 복음적 관심과 조선교인들의 독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등을 일으키던 시대였다. 대부분의 한국선교사들이 독일형의 경건주의자들로서 한국교회를 비정치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펜젤러만은 예외였다. 그는 영국형 경건주의자였기에 각종 사회참여 활동과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감옥생활을 돌보았고 그들을 기독교신앙으로 개종시켰다. 그는 단순히 동정적인 차원에서 독립운동가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상태를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부패하고 귀족정치적인 한국정부를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치철학과 사회윤리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이 그러한 지보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진보적, 독립적 입장의 학교로 발전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감리교선교부 출판국이 독립신문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으며, 영어로도 독립신문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그래서 독일형 경건주의자였던 스크랜톤과 심각하게 논쟁하기도 하였다.

1907-1919년까지는 선교사들의 경건주의적 관심과 조선교인들의 민족주의적관심의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내면적 확신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건전한 복음주의시대를 만들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민족적 불안을 신앙과 영적 부흥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 조선교인들과 선교사들이 화해하였다. 조선교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선교사들의 복음적 구원적 관심과 하나되게 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영적 힘이 사회적 성화운동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1919년 기미독립운동이었다. 유관순, 안중근, 제암감리교회청년들의 신앙은 개인구원 사회구원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었다.

1920-1944년까지의 한국교회는 사회적 성화는 약화되고 내면적 성화만을 강조함으로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의 부흥운동과 황국주, 유명화의 신비주의로 치달리는 불건전한 복음주의시대였다. 그래서 이당시의 한국교회를 춘원 이광수는 눈물어린 애정으로 비판하였다. 한국교회의 이론적 요소, 저세상적 요소, 감정적 요소, 비신학적 요소, 현실도피적 요소를 이광수는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으니까 불교도가 되어버렸다.

1945-1959년까지는 내면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의 불이 모두 꺼지는 암흑시대였다. 이 당시는 민족분열과 함께 교회분열의 시대였기에, 내면적 외연적 빛을 모두 상실하였다.

1960-1989년까지는 내면적성화와 사회적 성화가 양극화되던 시대였다. 개인 영혼구원의 복음화(evangelization)와 도시빈민 선교, 산업선교,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사회구원의 인간화(humanization)가 대립하고 분열하던 시기였다. 인간화운동을 주도해 온 사회적 성화의 캠프는 한국의 민주화에 크나큰 공헌을 이룩한 반면에, 복음화를 주장하는 내면적 성화의 캠프는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계에서 제일 큰 단독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등을 만들었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개신교회는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서로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협의회도 현장을 바꾸고 사회참여 뿐 아니라 개인구원도 관심갖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정교회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순복음교단)도 KNCC에 가입하게 되었다. 1907-1919년 시대처럼 영국형 경건주의의 사회적 성화와 미국형 경건주의의 신정정치 시온주의운동 및 천년왕국운동이 한국교회 속에 새롭게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루터적 독일형 경건주의의 저세상적, 물역사적, 개인구원적, 이원론적, 현실 도피적 요소가 아직도 한국교회에 강하게 남아 있지만, 이제는 웨슬리적 영국형 경건주의의 내면적 사회적 성화운동과 칼빈적 미국형 경건주의의 신정정치와 예언자적 신앙이 남북통일의 민족적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다.

〈나오는 말 :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갱신을 위한 제안〉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갱신과 사회개혁운동은 항상 역사의 재발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컨대 르네

상스는 희랍어 고전들과 라틴어 고전들과 히브리어 고전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발견하는 인문주의(humanism)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종교개혁도 어거스틴 같은 초대교부들의 저서를 연구하다가 일어난 교회갱신운동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경건주의 부흥운동 역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1907년대 부흥운동 때처럼 말씀을 통한 성령체험(through the Word), 말씀 안에서의 성령체험(in the Word), 말씀과 더불어 체험하는 성령체험(with the Word)을 강조하여야 한다. 말씀신앙과 체험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로, 신앙과 선행의 조화가 일어나야 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회 세계연맹이 루터의 종교개혁기념일인 1999년 10월 31일을 기하여 신학적 대화합을 선언하였다. 482년만에 루터의 신앙의인화가 진리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로마카톨릭 교회가 선행의인화에서 신앙의인화를 수용하는 신학적 전환을 하게되는 한편, 루터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이후에 선행으로 성화됨을 수용하였다. 행함 있는 신앙, 신앙의 생활화, 신앙의 문화화, 신앙의 사회화가 일어나야 한다.

셋째로, 웨슬리적 경건주의 부흥운동에서 강조된 것처럼 내면적 인격적 성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성령의 성화케 하는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화적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넷째로 사회적 경제적 성화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내면적 인격적 성화만아니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성화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나누어 주고 더불어 사는 운동이 요청된다. 재산상속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재산중의 일부는 자녀에게 나누어주되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성화운동을 일으킬 때 교회가 갱신될 수 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정신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어 갖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미국의 제2차 경건주의 부흥운동에서 강조된 것처럼 칼빈적 신정정치의 실현과 예언자적 신앙을 열망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주장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정정치의 천년왕국과 희년사회의 실현을 강조해야한다. 그러한 이상이 한국교회 부흥운동 속에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항상 영원하고 초월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나라를 사모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예언자적 신앙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 웨슬리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치유함으로써 해방되게 하는 민중의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 역사 속에서 희망 찾기 - 초기 부흥운동과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

이 덕 주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 한국교회사)

### 1. 머릿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교회,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망한다!”

“한국 교회, 종교개혁 같은 대 변혁이 있지 않고는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은 너무 자주 듣게 되어서 그런지 다급한 외침인데도 감각이 별로 없다.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최근 들어 교회나 목회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당국의 처사나 일반 언론의 보도는 한편으로는 반(反)기독교 정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 기독교의 위기 상황에 대한 강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교계는 ‘교권 침해’, ‘편파적 보도’ 운운하며 공세를 취하는 입장과, 이번 기회를 회개와 자성의 기회로 삼아 영적 갱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 교회 상황에서 영적 갱신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성경의 증언이 그러하였듯 우리도 과거 역사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 종교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역사가 새롭게 전개될 때마다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얻었듯이, 오늘 한국 교회도 영적위기의 시대에 역사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비록 1세기 조금 넘었지만 한국 개신교회 역사에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사에 전혀 뒤지지 않은 아름다운 신앙 체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1백 년 전 원산부흥운동(1903년)에서 시작하여 평양 부흥운동(1907년)으로 이어지는 한국 교회의 초기 부흥운동은 그 내용과 성격에서 18-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종교대각성운동’(Great Religious Awakening Movement)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영적 각성운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은 한국 교회의 신앙 내용과 성격을 형성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일제시대 민족 수난의 현장에서 민족 구원을 향한 저항운동의 원동력(energy)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부흥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 한국 감리교회의 ‘내적’ 체질이 바뀌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적’ 권위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민족 공동체에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 ‘1세대’ 선배들이 체험했던 영적 각성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원산 부흥운동과 영적 각성

### 2.1 선교사의 눈물 : 원산부흥운동의 출발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도 있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이하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해 이곳 북동부 지역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하면서 대부분 교인들이 기대이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년을 돌아보아도 늘 하던 일에 그다지 큰 변화 없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자책감이 드는 것은 여전합니다.”

“지난 해 보고서를 내면서, ‘내가 이 일을 증거하였고 성령께서도 증거하시도다’는 구절을 삽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쓰면서도, ‘정말 내가 쓴 거냐?’라고 자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고 은사를 주셨으며,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땅치 않으리라.’ 그분께서는 제가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을 풍성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영광이 있을 끼어다. 아멘.’”

원산지방에서 활동했던 하디(R.A. Hardie) 선교사가 1902년부터 3년 동안 남감리회 한국선교연회에 제출했던 선교보고의 부분들이다. 1902년 보고에 한국인들에 대한 실망과 정죄,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좌절이 가득 찼다면 1903년 보고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1904년 보고에는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내적 변화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실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감사로 변하는 감격의 생활을 가늠케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원산부흥운동’ 때문이다. 이런 부흥운동의 불길은 지핀 인물이 바로 하디였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그는 토론토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 열풍처럼 번지던 ‘대학생 선교 자원운동’을 접하고 선교사로 자원하였다. 그리고 캐나다대학 기독교청년회의 자금 지원으로 1890년 내한하였다. 1896년에 이르러 캐나다 대학생들이 보내주는 선교비가 중단됨으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했으나 개성에 병원을 두고 있던 남감리회에서 그를 받아들임으로 이때부터 남감리회 소속이 되었다.

초기엔 의료 활동에 전념하였으나 1898년 원산으로 옮긴 후에는 병원보다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전도와 목회에 많은 시간을 냈다. 태백산맥이 가로지른 함경도와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전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효과도 없었다.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실망만 더해갔다. 1902년 보고에서 느낄 수 있듯 실패와 좌절감이 더해갔다.

이런 상황에서 1903년 8월, 원산에 있던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성경공부 모임을 갖게 되었다. 중



국에서 활동하던 중 휴가차 원산에 들른 감리교 여선교사 화이트(M.C. White)가 제안한 것이었다. 1주일 동안 계속된 모임은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기도와 성령체험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엔 피동적인 자세로 임했던 하디가 바로 이 모임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첫 번째 명하신 것은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할애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패하였다는 사실과 실패한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괴롭고도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하다 하셨으니 이는 오늘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 하심이라.’ 지난 수년간 나는 한국인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 주도록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지속적이고도 빈틈없는 회개, 고통을 수반한 회개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디는 성령 체험을 한 다음 주일, 낮 예배시간에 원산교회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오만과 불신을 공개적으로 자복하였다. 한국인 회중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 때부터 원산에서 모이는 집회마다 공개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선교사와 교인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디의 변화는 다른 선교사들을 변화시켰고, 선교사들의 변화는 한국인들을 변화시켰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의 눈물은 교인의 눈물을 끌어내는 지름길이다.

## 2.2 양심전: 중생한 교인들의 윤리 갱신운동

1903년 여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수반하였다. 그리고 그 운동은 선교사들 속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 조사와 전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1903년 여름 원산부흥운동을 목격했던 저다인(J.L. Gerdine)의 보고다.

“지난해 원산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그 곳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회와 이에 관련되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부흥회 모임은 주로 하디가 이끌었는데 은혜가 넘치는 집회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산 시약소에서 로스 박사를 도와주고 있던 최종손, 로스에게 한국 말을 가르쳐주고 있던 진천수, 그리고 우리 독신자 숙소를 돌보고 있는 강태수 등이 한 방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로스박사와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와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부흥회 첫날 종손이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지난 사오일간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죄목을 써가지고 나와서 읽으며 자복하였는데 그 동안 도둑질한 것들을 읽어가며 악으로 가득 찼던 자기 속을 털어 놓았습니다. 회개를 한 후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저는 그같이 완벽한 회개를 본적이 없었습니다……. 회개한 종손이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이었는데 누구보다 한 방을 쓰고 있던 동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룻가 이틀 만에 태수가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도 역시 기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며칠 후, 천수도 회개했습니다. 그는 소위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충격과 감격 속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중생의 체험들을 기록하기에 바빴다. 무엇보다 이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는 중견 전도인 윤승근(尹承根)의 회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윤승근은 남감리회 개척 선교사 리드가 내한해서 처음 얻은 교인 중 한 사람으로 남감리회 소속 한국인 전도자 중에서 뛰어난 실력자였다. 이런 그도 회개반열에 합류하였다.

“그도 성령의 견책을 달게 받고 사경회 같은 모임에서 몇 차례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선교사들이나 한국인들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은총을 입지 않았더라면 것처럼 편안하게 자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번은 과거 선교사 밑에서 매서인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빼돌린 것이 7달러에 달했다고 자복하였습니다. 그는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선교사 돈 뿐 아니었다. 벽제 출신으로 선교사를 만나기 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윤승근은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횡령한 것도 생각나는 대로 갚기 시작하였다. 옛날 인천 주전소(鑄錢所)에서 근무할 때 횡령한 돈도 생각났다. 그는 쓸 것을 쓰지 않고 돈 20원을 모았다. 그러나 이미 인천주전소가 폐쇄되고 없었다. 그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탁지부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놓았다. 탁지부에서는 “희한한 일도 있다”며 영수증을 써 주었다. 이런 식으로 윤승근이 찾아다니며 갚는 돈에 ‘양심전’(良心錢)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부흥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교인들은 과거에 횡령하거나 훔친 돈을 돌려주는 보상 행위가 잇따랐다. 그런데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받을 대상이 없어 돌려 줄 수 없는 경우, 그런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쳤다. 이렇게 제단에 바쳐진 돈을 ‘양심전’이라 하였다. 양심전은 신앙을 통해 양심을 회복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구체적 ‘회개의 열매’였다.

‘양심전’의 주인공 윤승근은 1904년 초, 강원도 김화 땅 새술막(학사리)에서 전도하다가 폐결핵으로 별세하고 말았다. 몸을 아끼지 않고 강원도 산간지방을 돌며 전도에만 몰두했던 결과였다.

그의 별세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긴 하디는 다음과 같이 그의 삶을 기렸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 어디 가서든 그것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실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너무 과로하여 극도로 몸이 쇠약했음에도 기쁨과 행복에 넘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도 그를 겁주지 못했습니다. ... 이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 교회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도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예를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으로 성령을 체험한 한국인들에게 이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신분과 출신지, 나이와 환경이 달랐지만 성령을 체험한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둘째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자복)하였고, 셋째 자복 후엔 평안과 기쁨을 누렸고, 넷째 회개 후엔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real Christian)이 되기 위한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다. 이처럼 원산부흥운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기

독교의 본질적 신앙 체험을 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서양 종교’ ‘선교사들의 종교’로 치부되어 오던 기독교를 ‘한국인의 종교’로 승화시킨 계기를 마련했다.

## 3. 평양 부흥운동과 기독교 윤리 형성

### 3.1 자백과 보상: 회개의 완성

1903년 8월 하다가 “원산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처럼 그 후 전개된 부흥운동에서도 죄에 대한 자각과 자백이 부흥운동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베어드 부인은 1907년 숭실학교 학생들의 충격적인 자백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마루 바닥을 치기도 하고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 놓는 듯 소리를 치며 괴로워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엄청난 자백이었다. 마치 지옥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았다. 살인과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더럽고도 혐오스런 죄들을 자백하는데, 방화, 술주정, 절도, 강도, 거짓말을 비롯해서 미움, 원한, 시기, 질투 같은 부끄러운 죄들을 토해 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죄의 자백들이었다. 한국인들조차 자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였다.”

부흥운동 기간 중에 행해진 죄의 자복은 구체적이고 자세하였다.

부흥운동 기간 중 집회 때마다 ‘지옥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죄의 자복이 터져 나왔다. 그해(1907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평양 연합사경회도 마찬가지였다. 스왈른(W.L. Swallen) 선교사의 증언이다.

“집회 시작부터 죄의 자백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에 들어볼 수 없었던 가증스런 죄들이었다. 자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죄의식을 갖고 하는지 분명치는 않았지만 자복 행위만큼은 진지했다. 그러나 한 주일 동안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저들의 죄의식이 점차 깊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였다. 전에 형식적으로 자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죄 때문에 진심으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다. 토요일 저녁 집회는 자정까지 연장되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에 지었던 죄, 감추었던 죄들이 드러났다. 속임수, 교만, 물질욕, 음욕, 탐욕, 미움, 질투 등 말 그대로 악의 범주에 드는 모든 죄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죄의 자복에 이은 배상 혹은 보상 행위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나타났다. 즉 죄를 깨달은 교인들이 ‘훔친 물건 되돌려주기가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배상 행위’는 1907년 평양 부흥운동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다. 블레어의 증언이다.

“회개는 눈물과 자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배상하려고 하였고 그 후에 평안을 얻었다. 우리 선교사들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한테서 훔쳐간 물건과 돈들을 돌려 받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슬퍼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교인들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동안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면서 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는데 교인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인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는 바람에 시내 전체가 들쭉거렸다. 어떤 중국인 상인은 교인이 상점에 찾

아 와 수년 전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를 내 놓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공주에서도 회개 다음에 “전에 속이고 도적질한 것 것을 무슨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각기 그 주인에게 보낼 시, 혹 먼 곳이면 우체부를 통해서 전하고, 아주 전할 곳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보상 행위가 이어졌다. 이 같은 배상 혹은 보상 행위를 회개의 완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죄의 자백과 배상이 부흥운동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그리스도인 체험의 기초 단계”였다. 즉 한국인들은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 → 중생 → 성결에 이르는 기독교 신앙 본질의 첫째 단계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토착 교인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부흥운동을 기독교의 ‘본질 체험’ (initial experience)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3.2 공개적 죄의 자백: 기독교 윤리 형성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죄를 자복한 교인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깊이 있는 ‘죄 의식’은 회개를 불러 일으켰고 진실한 회개는 변화된 행동으로 입증되었다. 교인들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과 원리를 세우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평양에 있던 무어 선교사는 부흥운동의 중요한 열매의 하나로 새로운 윤리 의식 형성을 꼽고 있다.

“부흥사경회의 하루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전에는 한 시간 기도회를 하고 두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한다. 오후에는 한 시간 공부를 하고 나서 교인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주제를 갖고 한 시간 동안 토론회를 갖은 후 다시 한 시간 동안 거리로 나가 축호전도를 한다.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연다. 오후 토론회는 조혼(早婚), 교육, 순결, 흡연 등의 주제를 놓고 공개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에 참가하는 토착 교인들의 열정과 예리함은 놀랄 만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인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된 것에 대해 도덕적 입장(moral stand)을 정립한다는 점이다.”

‘죄 의식’ (罪意識)은 ‘윤리 의식’ (倫理意識)의 다른 표현이다. 죄와 윤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죄를 뒤집으면 윤리가 된다. 부흥운동을 겪은 한국 교인들은 회개와 자복을 한 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새로운 ‘윤리 의식’을 갖게 되었다. 부흥운동 기간 중 고백된 죄목을 보면, 살인·간음·절도·거짓말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죄로 분류되는 보편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흡연·축첩(蓄妾)·노비(奴婢)·제사(祭祀)·주술(呪術) 같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목’에 들지 않았던 행위들도 포함되었다. 주로 유교나 불교, 민간신앙에 근거를 두고 이어져 내려온 생활 습관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원리에 비추어 ‘비도덕적인 것’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행위들이 ‘죄목’으로 나열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유교 및 전통 종교 윤리를 대체할 새로운 윤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새로운 윤리의 종교적 근거로 기독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기독교적 윤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초기 부흥운동은 한국 교인들의 회개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근대 사회 윤리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그 ‘윤리적’ 행위로 일반 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



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는 사회에 영적 권위를 갖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4. 맺음 글 :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

지금까지 1903년 원산부흥운동으로부터 1907년 평양 부흥운동에 이르는 초기 부흥운동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원산 부흥운동은 그 지역 교회 지도자였던 하디 선교사의 ‘눈물의 회개’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서 회개는 ‘위로부터 아래로’(downward) 이루어진다. 목사가 회개하면 교인들이 회개한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목사의 눈물에 있다.

둘째,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교인들은 회개→중생→성결에 이르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종교 체험을 하였다. 회개하여 중생한 교인이 윤리적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였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온갖 비도덕적인 행위 즉 살인과 폭력, 강도와 절도, 도박과 사기, 술과 담배, 축첩과 노비 같은 과거 습관들을 버렸다. 그 결과 초대 교회 교인들은 사회에서 ‘구별된’(kadosh,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일반 사회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초기 부흥운동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격과 신앙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때 비축된 영적 에너지로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 수난과 혼돈의 시대를 견디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외형적 규모와 숫자에 취하여 내적, 영적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자기변명 보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영적 권위와 사회적 지도력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 교회에 ‘초기 부흥운동’이 재현되어야 할 이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공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03년 여름, 원산교회 주일 예배 때 ‘성령에 사로잡힌’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며 ‘절통한 심정으로’ 흘린 눈물은 전국적인 부흥운동으로 연결되어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윤리적 갱신으로 이어졌다.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으며, 초기 교인들의 자기희생적 전도운동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일궈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계 2:4)이고 재현해야 할 ‘처음 행위’(계 2:5)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계획과 의지를 뛰어 넘는 성령의 역사였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사업이나 행사보다 시급한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사도들의 다락방 기도(행 1:13-14)가 아닐까? 성령 강림 없이 영적 각성운동은 불가능하고, 영적 각성 없이 양심 회복은 불가능하며, 양심 회복 없이 교회의 영적 권위 회복은 불가능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 회복 없이 전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남아 있는 희망의 근거는 초대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뿐이다.

## 감리교회, 복음의 communication

김 명 구 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 한국교회사)

### 1. 왜 감리교인가? - 장로교회와의 상관성 / 지역, 계층의 문제

120년 전인 1885년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온 이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장로교나 감리교라는 교파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공통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을 신봉한 사람들이었다. 복음주의의 신학은 성서중심과 회심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학이었고 비엘리트적 요소가 강했으며 요한 웨슬리를 시조(始祖)로 말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원형으로 공감되고 있는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도 성경공부중심으로 했던, 사경회 중심의 영적 대각성운동이었다.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의 테두리 안에서의 성령운동이었던 것이다. 결국 복음주의가 한국교회 신학의 원형임을 알 수 있다.

복음주의는 신학적 교리가 약했고 단순하고 감정적이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축약된 교회의 성격이 강했고 체계적이지도 않았다. 도시적 요소가 강해서 직접적이고 역동적이며 대중 지향적이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는 군소교단에 불과한 장로교회가 한국에서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교회의 인원수를 가지고 교회의 질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 교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인 것이다.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감리교나 장로교의 구분이 없이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의 산물이었으며, 이 운동은 복음주의로 인해 발생되었다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분명 칼빈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아이니컬하게도 장로교 선교사들은 감리교의 출발점인 영미계통의 복음주의의 신학을 사용했고 주로 계급과 계층적으로 중하위에 속하는 서북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했다. 당시 기독교를 받아드렸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전통과 체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던 것이다.

○○○○(Ernst Troeltsch)가 말한대로 계급이나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종교적 상상력, 감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단순하며, 사고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성, 봉사의 자발성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필요에서 나오는 강한 열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신적인 계시에 대해 무조건 믿고, 완전히 복종하는 순진성이 있다. 또한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전달층의 복음주의 특성과 서북지역의 낮은 계급 혹은 계층 사람들의 속성이 잘 맞아떨어져 이 지역에서의 장로교 부흥이 가능했던 것이다.

감리교는 선교초기, 서울지역과 경기·충청지역의 유교적 교양이 정신적 토대였던 양반관료군들의 관심, 즉 개화의 통로로서 기독교를 받아드리려던 사람들에게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여기에 국권이 위태로웠던 당시의 여건 하에서 많은 서구의 근대적 문명을 수용하려 했던 신진 엘리트와 상동파로 알려진 애국 청년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독교를 통해 개화를 추진하고 교회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며 기독교적 윤리로 재무장하여 민족 갱생을 도모하고자 했다. 감리교는 애국운동의 바탕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측면에서는, 물론 민족 혹은 애국이라는 절대명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태도는 복음을 민족의 당면한 문제나 과제 아래로 두기가 쉽다. 실제 한국 기독교 일각에서는 민족이 상위개념이요, 복음을 민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룹이 적지 않다.

기독교 입교의 동기는 서북의 낮은 계급과 계층의 장로교회가 개인의 내면적인 면이 강조되었다면 보다 상위 그룹이었던,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감리교회는 민족적 필요성이 기독교 입교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 2. 1905년론

정동교회에서는 1904년 9월 20일부터 19일간 부흥회를 열었다. 이 부흥회는 철원에서 선교실패를 맞보았던 남감리교의 하디(R.A.Hardie)에 의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었다.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는 자신을 놀랍게 변화시킨 성령의 체험을 전하였을 때 비로소 한국인들의 신앙의 문이 열렸음을 선교본부에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바람은 강도를 더하였고, 1907년 평양으로 번져나가기 전, 남감리교 선교지역인 송도, 인천, 공주 등지로 퍼졌으며 서울에까지 복음주의적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본래 하디 목사가 인도한 부흥회는 배재와 이화학당의 학생들을 위한 집회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반 교인들도 참석을 하였고, 수구문 교회(광희문 교회)의 무야곱 선교사의 증언처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자기 심중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잃어버린 심신을 회복시켰으며 구원의 체험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와 같은 소박한 신앙은 점점 그 열기를 더해나가 정동감리교회에는 서울의 성문밖에 기거하는 부서층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1904년 이후 정동교회는 급격히 늘어나 1906년에서 1907년 1년 사이에 교인의 수는 3배로 늘어 주일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2,825명이 되었다. 정동교회는 늘어나는 교인을 주체할 수 없어 1905년 이후 창천교회, 서강교회, 만리동교회, 공덕 교회를 세워나갔다. 창천교회의 경우, 예배처가 세워진지 5년이 채 안되어 학습인까지 451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신촌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다. 또한 백련동교회(홍남교회), 수색교회를 개척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서울 4대문 안의 신진 엘리트와 양반관료층 위주에 머물렀던 한국의 감리교회가, 전통과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교육받지 못했던 민초그룹으로 그 전도의 폭을 넓혀나가게 되었다는 것과 그 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적 지향성을 찾아 가는 것이 바로 감리교의 역사적 본래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복음은 감리교 본래의 속성중 하나인 대중 속에 수용되고 그로인해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을 맞보았던 것이다. 한국감리교회가 1905년을 기점으로 근대화를 열망했던 선교초기의 인식에서 벗어나 복음의 소박한 신앙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에너지가 자발적 전도로 나타났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는 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 3. 성육신의 원리와 민족의 문제 - 복음과 민족의 communication

초기의 한국 감리교인들은 대부분이 사대부의 양반관료층과 서구의 근대적 문명을 열망하던 신진엘리트들이었다. 이것은 민족의 아픔에 책임과 의미가 남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엘리트층들이 갖고 있는 계층적 성향, 즉 기독교의 복음이 지적(知的)인 이들 지성인들의 성향을 만족시켜야만 했다는 문제도 야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곧 감리교 본래의 신학,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대중지향성이 외면되고 제한되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주장처럼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교회는 작은 분파운동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교회가 되고 또 새로운 종파가 생겨 이전 것을 극복하는 순화적 과정을 밟아왔다. 그것은 대중들의 종교적 욕구에 부응여부에 따라 성장과 쇠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초기를 주도했던, 청교도인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목회자들은 신학적 수준과 윤리적 경건이 대단히 높았다. 대학교육을 마치고도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좋은 보수를 기대했고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안정된 교회들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각성운동으로 미국 교회의 순위가 바뀌었다. 곧 기존의 장로교회나 회중교회에 비해 1/10도 채 되지 않았던 감리교회는 거꾸로 기존교회보다 여러 배의 교세로 성장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아닌 대중들의 종교적 요구, 즉 복음의 영적 요구를 충족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엘리트들뿐 만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할 수 있다면 보통사람들에게 임시 지역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전도하기 위해 장로교회 목사들이 꺼려하는 농촌이나 오지(奧地)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세기 후에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나 회중교회의 전철을 밟았다. 지적 훈련을 많이 받은 목회자들이 교단을 점령하였고 매우 진보주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설교했다. 열정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설교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사실, 다수의 대중들은 고도의 지적(知的)인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단순한,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고등지식과 신학은 교회 안에 널리 퍼지지 못한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학적 논쟁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그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는 것이다. 지성과 지식은 교회의 복음을 담는 세련된 도구이지만 유일한 도구가 아닌 것이다.

하늘에만 계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 자리의 중심에 계셨다. 복음주의가 지향하는 대중성은 바로 성육신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 곧 요한 웨슬리의 복음주의 특성인 것이다. 한국감리교회는 복음주의적 대중성을 보다 확고히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교회의 요지, 곧 복음이 민족을 이끌어 민족에게 공헌하는 것이며 민족과 복음과의 진정한 communication을 이루는 것이다.

## 4. 요한 웨슬리의 신학의 구조와 communication

- 시간과 공간과의 communication

요한 웨슬리 신학의 표지는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인 것이다. 이 신학적 표지는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확산되는 구조였으며 복음이 시간과 공간의 communication을 갖게 되는 이론

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성서, 전통, 체험, 이성, 이 네 가지가 서로 동일한 위치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학적 역학권에서 보면 이러한 주장은 정답이 아닌 것이다.

성서와 전통, 체험과 이성, 이 네 가지가 서로 동등하게 대립하거나 견제, 혹은 간섭하게 되어있다. 곧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오직 성서”를 외친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의 전통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웨슬리 신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인적 회심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계속 진행될 때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이성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웨슬리의 신학적 표지를 설명할 때, 이러한 각 표지가 갖고 있는 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각 표지가 각기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주장은 자칫 감리교회의 복음주의적 에너지의 발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웨슬리 본래의 의도와 달리 성서의 본질만 주장하면 사도계승의 역사성을 부정하여 역사적이고 가시적 교회의 조직을 무시 하게 될 수 있고, 전통을 보다 강조하면 교회조직을 관료화시키기 쉽다. 영성을 방자로 열광적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날카로운 이성만을 강조하여 신앙을 차갑고 건조하게 할 수 있다. 실제 감리교의 신학적 주장이나 태도는 하나라 보기 어렵다.

웨슬리의 네 표지를 분석하면 여기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이 성서와 체험이다. 교회의 전통과 객관적 이성은 유기적으로 성서와 체험을 돕는다. 여기에서 성서중심의 표지는 성서학자들의 수준에서 해석되는 신학적 비평의 의미가 아니라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애호하는 성서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서적 신앙은 루터나 칼빈보다는 그 신학적 교회론이 약하지만, 사도적 계승권을 갖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한다. 역사 속의 교회를 통해 성서적 신앙이 계승되어 온 것처럼 장차도 그러한 전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곧 시간적이며 수직적 구조를 갖는 것이다.

체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전술한대로 신비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웨슬리의 신학을 신비주의로 보기도 한다. 1930년대의 이용도 목사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지만, 신비주의로 빠져 들었다. 개인의 체험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면, 이성은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다. 곧 웨슬리가 의도하는 것은 회심 체험의 영성이 그 시대의 사회의 객관적 보편성,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수평적이며 공간적 communication을 확보하는 것이다.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주관적 체험이 개인의 차원이나 소규모의 영역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하여 거대한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 5. 감리교회, 복음과 생명과의 communication

에스겔서는 회복과 역전(逆轉)의 복음서라 할 수 있다. 죽은 뼈가 생명으로 돌아오고(37장),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 죽은 바다를 살려낸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썩을 수 없는 바다가 썩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이다. 곧 바다도 썩을 수 있다. 그것은 맑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물은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성전의 맑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일방적으로 성전이 썩어 맑은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사실이다. 곧 성전에서 맑은 물이 치솟지 않아서가 아니라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가 썩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천년의 교회사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초대교회의 완전성을 확보한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언제나 교회의 문제가 안타까워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맑은 무리가 있어왔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교회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로렘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착각(열상 19:18)도 그 증거중 하나이다.

교회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들이 모여 계속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가야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난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곧 시간과 공간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복음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본래적 감리교회의 구조인 것이다.

웨슬리는 신학적 사유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목회자요 복음전도자로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성서를 근거로 하는 영적 각성으로 복음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복음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복음은 자유로운 흐름이요 어느 한쪽에 메이거나 편향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내심(內心), 서구에 대한 반감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기초로 하여 주장되는 신학의 토착화 주장은 복음을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요, 소외된 계층의 편중이나 엘리트 지향의 태도도 복음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복음이 공간과 시간의 활발한 흐름이라고 할 때, 영적 에너지가 개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영적인 에너지를 가두는 것이다.

복음은 결국 생명을 살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그 흐름을 방해하면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고 발휘되지 않는다. 선교 120주년을 맞는 한국감리교회에 각 개인이나 각 교회의 치솟는 영적 에너지가 적지 않다. 이것이 모아져 거대한 운동으로 확대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생명의 땅으로 소생되어야 한다. 곧 외연(外延)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에너지의 발휘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선교적 목표가 우리 감리교회에 주어진 본래적인 과제이다.

## 6. ‘길’의 신학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길’이라는 언어 속에는 깊고 멀고 신비로운 정감을 담고 있다. 길의 상징은 그 깊이와 거리에 있어 인간론, 실존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적 대상을 말하는 데서 존재론적 의미를 구하고 있다.

‘길’의 성서적 의미는 기독교인의 선교와 삶의 의미로 해석된다. 곧 구원의 선교적 의미와 윤리적 삶(道)의 뜻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길’은 이러한 관념적이고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인간이 실제로 통용하는 ‘길’(도로)을 통해 전해지고 퍼진다는 것이다.

200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홍규 교수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그것은 도시공학에서 다루는 Space Syntax 분석을 통해 한국교회의 공간적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즉 도시의 도로

## [ 영적대각성운동 ]

망을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세를 덧붙였다. 목회자의 여러 능력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기존 이미지를 제거한 기계적 작업이었다.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신촌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크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일수록 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로변에 위치한 교회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였으며 따라서 교회화장의 능력도 자연적으로 뛰어났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주변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전도에 효과적인 지리적 입지를 차지한 것이다.

복음주의는 도시적이고 지극히 대중적이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도 드러났듯이 복음주의의 교회는 상징적인 곳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중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다.

현대 도시인들의 종교적 욕구는 매우 직접적이며 단순하다. 물론,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확실히 전문적인 지식이 유용하다. 또한 기독교 진리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고도의 학문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의 대중들은 고상하고 이념적이며 어려운 논리로 설명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도시의 생활이 이들에게 사고(思考)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인들은 도시가 갖는 기능성과 효율성에 대단히 익숙해 있다. 여기에 선교에 적극적 자세와 방법이 숨겨져 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숭고(崇高)의 의미가 대중적 선포와 가르침으로 표현되어 도시 대중들의 생활세계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부응치 못하면 새로운 종파에게 그 자리를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시대의 과제를 도출해 내야한다. 그것은 실크로드이다. 선교의 과제로 해결해야할 역사적 장소이다. 또한 유일하게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동방기독교가 800여 년 동안 그 교세를 확대해 낸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이 구원자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감리교회 선교의 한부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선교전략연구소의 MS2025(2025년까지 실크로드에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개념)계획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다. 세계선교를 향한 한국감리교회가 유일한 선교의 불모지인 실크로드를 회복하려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나갔던 역사적 길을 회복하는 것이며 중요한 선교적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 7.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지금 한국 감리교회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슬러건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우리는 “위대한 감리교회”, “300만 총력전도”를 외쳐왔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로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라 본다. 감리교회가 갖고 있었던 역사적 본래성, 즉 성서에 근거한 개개인, 개교회의 영적 각성이 모아져 적극적으로 한 생명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위대성을 이루는 것이요, 300만이라는 숫자도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희망을 위해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적 정체성과 그 의무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한다.





■ 2005년 중부연회 정책협의회 ( 양평 2005. 12. )



■ 감독회의 영적각성 선언 ( 2005.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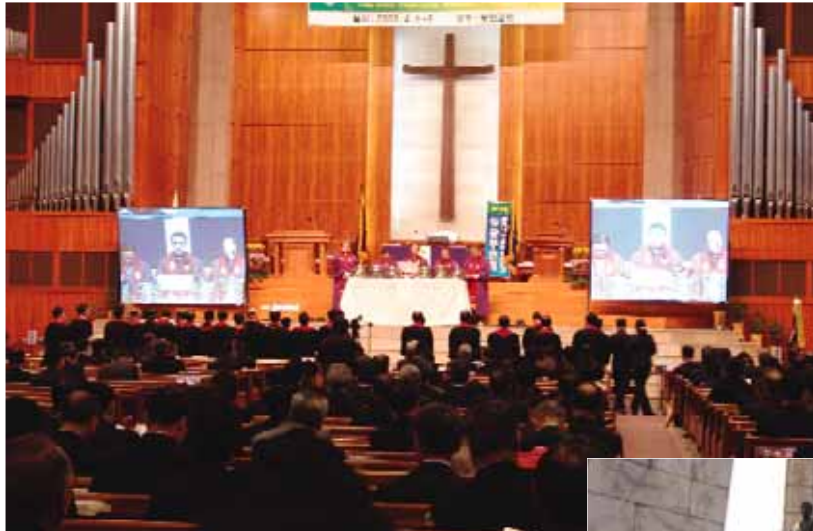


■ 영적대각성을 위한 월요기도회  
( 2005. 2. 14 ~ 4. 4 내리교회 )



■ 영적대각성운동 협의회 ( 2005. 1. 연회본부 )





■아펜젤러 선교120주년 기념대회 ( 2005. 4. 5 ~ 8 )



■중부연회 목회세미나 ( 2005. 9. 5 ~ 8 낙산비취호텔 )



■영적각성을 갈망하는 목회자



■영적대각성 금식기도회 ( 2005. 10. 28 강화 )



■2006년 중부연회 정책협의회  
( 2005. 12. 15 ~16 강화 )



■영적대각성 특별성회 준비 ( 2005. 12. 강화 )





■영적대각성 특별성회 준비기도회 ( 2006. 3. 15 송의교회 )



■영적대각성 특별성회 준비모임 ( 감리사 )



■이규학 감독 초청 특별성회 후원의 밤 ( 2006. 2. 28 부평교회 )





■영적대각성 특별성회 ( 2006. 4. 17 인천문학경기장 )



하디(R. A. HARDIE)선교사  
원산-평양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감리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제65회 중부연회

# 영적대각성 특별성회

변화와 부흥

2006년 4월 17일(월) / 인천 문학야구장  
오전 10시~12시 (지방 및 권역별 행사)  
오후 2시~5시(본 행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illegible]



[ 영적대각성운동 7대 강령 ]

성령의 도우심

말씀과 기도

회개와 거듭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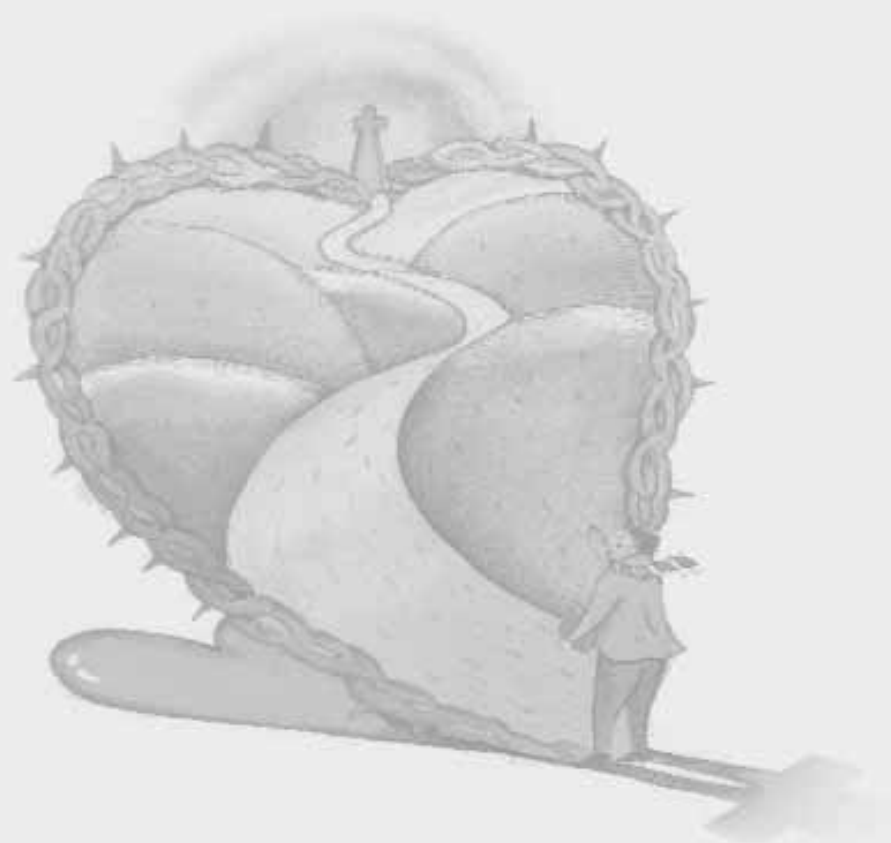
성결한 삶

복음전도

사회적 책임

화해와 연합

# 1. 영적대각성 기도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 행동목표 1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중보기도

## 현 황

2005년도부터 한국감리교회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3대 정책목표 10대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교단정책을 펼치고 있다.

3대 정책 중 영적대각성운동을 범교회적으로 전개해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나 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야 말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감독회의에서는 영적대각성 선언문과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발표하였고 감리교회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중부연회가 앞서서 영적 변화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대각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적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 영적대각성운동의 열매는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시대적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한마음으로 드러지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다.

1903년부터 원산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 배경에는 하디선교사가 이끄는 다섯 명의 작은 기도모임이 있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배경에도 교파연합기도회 등 3,4개월씩 지속된 연속 기도회가 있었다.

2005년도 중부연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50일간 1차 영적대각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2차로 7주간 권역별 영적대각성 기도회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29개 지방별 기도회와 목회자, 평신도 대표 등이 영적대각성 금식기도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 \*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한 강력한 기도운동의 필요성 인식
- \* 권역별 기도회를 통한 감리교회 연합 기도운동 체험
- \* 감리교회 본질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
- \* 영적 대각성 운동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특화된 기도회 및 실천 프로그램의 필요

등을 긍정적으로 공감하였다. 또한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설교 강사들의 영적대각성운동에 부합하는 말씀 준비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러므로 연회, 권역별, 지방회별, 개체교회 단위에서 영적대각성 운동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보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005년도 중부연회 영적대각성기도회 현황

| 구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합계     |
|----|-------------------------|-----|------|------|------|-----|------|--------|
| 1차 | 298                     | 287 | 193  | 135  | 335  | 142 | 233  | 1623명  |
| 2차 | 2295                    | 840 | 1900 | 1600 | 2461 | 790 | 1147 | 11033명 |
| 3차 | 29개 지방별 기도회             |     |      |      |      |     |      |        |
| 4차 | 목회자, 장로, 평신도단체 임원 금식기도회 |     |      |      |      |     |      | 610명   |

## 기본과제

1. 연회에서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연합기도회 개최
2. 지방별, 권역별 연합기도회 개최

## 실천계획

▶연회 : 연1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하는 금식 기도회를 주관한다.

▶지방(권역) : ① 지방별로 매월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② 목회자 기도 모임을 갖는다.  
 ③ 말씀중심의 특화된 영적각성 연합집회를 실시한다.  
 ④ 평신도 선교단체는 연합기도운동에 힘쓴다.

▶교회 : ① 주1회 집중기도회를 힘쓴다.  
 ② 속회를 통한 중보기도에 힘쓴다.

▶개인 : ① 회개와 성화를 위한 기도에 힘쓴다.  
 ②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중보기도에 힘쓴다.  
 ③ 감리교회 영적대각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④ 감리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⑤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한다.  
 ⑥ 정직하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 행동목표 2

## 영적대각성 운동을 위한 신학정립

## 현 황

감리교회는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의 영적각성에서 시작되었고, 한국감리교회는 19세기 미국감리교회의 영적대각성운동의 결과 1885년 4월 5일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온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복음선교에 투신한 약4만 명의 젊은이 가운데서 가장 불안하고 가난했던 한국으로 선교지를 지원한 선교사들이 있었다.

이들 중 원산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였던 감리교 하디선교사가 1903년 8월,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교만과 완악함에 빠져 한국인을 무시했던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선교초기 영적대각성운동이 서울, 개성, 인천 등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 철저한 회개, 윤리적 갱신, 사회적 변화, 교회 부흥 등 엄청난 변화를 끼쳤다. 그리고 1907년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하는 평양대부흥운동의 결과 한국감리교회는 다섯 배로 부흥하게 되었다.

21세기 초 한국감리교회가 영적대각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선 과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대각성운동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일이다. 나아가 평신도들의 신학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영적인 유산을 확인하고 영적대각성운동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신학을 다각적으로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2005년 중부연회 영적대각성 운동 신학세미나

| 구 분 | 연 회      |           |               | 파주교양    |         |         | 강 화       |            |
|-----|----------|-----------|---------------|---------|---------|---------|-----------|------------|
| 회 수 | 1        | 2         | 3             | 1       | 2       | 3       | 1         | 2          |
| 일 시 | 4. 25.   | 9. 2      | 12. 15.       | 9. 1.   | 10. 30  | 12. 1.  | 11. 3.    | 11. 23.    |
| 주 제 | 영적변화와 부흥 | 감리교회 영적유산 | 선교초기 영적운동의 흐름 | 한국 영적각성 | 영국 영적각성 | 한국교회 진단 | 감리교회 영적유산 | 영적변화와 선교소명 |
| 강 사 | 이규학      | 김명구       | 이덕주           | 이덕주     | 김홍기     | 이원규     | 이덕주       | 이규학        |
| 인 원 | 150      | 80        | 120           | 150     | 110     | 60      | 160       | 900        |

1903년 ~ 1907년 성령행전 지도



기본과제

- 1. 한국교회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개최
- 2. 평신도 신학 강좌 개최.

실천계획

- ▶연회 : ① 신학연구 발표를 주관한다.  
② 목회자를 위한 권역별 신학세미나를 개최한다.  
③ 영상물을 제작 보급한다.  
④ 평신도 신학세미나 강사단을 준비한다.  
⑤ 평신도를 위한 신학교재를 발간한다.  
⑥ 영적대각성 운동 사경회 교재를 발간한다.
- ▶지방회 : 연1회 이상 평신도 신학강좌를 위한 지방별 연합 집회를 실시한다.
- ▶교회 : 영적대각성 운동에 관한 역사 및 신학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행동목표 3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와  
한반도영적대각성 대회(2007년)의 성공 기원

현 황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감리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 하나는 영적대각성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6년 7월20일부터 24일까지 “그리스도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열리는 세계감리교대회를 개최하게 하신 것이다.

한국선교초기 성령께서 감리교인들 가운데서 영적부흥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영적대각성운동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약 1만 명의 감리교회 대표들이 모여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감리교대회는 150만 한국감리교인들의 축제요, 전 세계7천만 명 감리교인들의 잔치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감리교회를 영적으로 보다 성숙하게 하시려는 큰 기회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속에서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6년 세계감리교대회는 단순한 교세의 과시나 행사에 치우치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비춰지는 대회가 되도록 감리교인 모두가 기도와 헌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 한반도 영적대각성대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여 세상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역대 세계감리교대회 현황

|      |                    |      |                     |
|------|--------------------|------|---------------------|
| 제1회  | 1881년 영국 런던        | 제11회 | 1966년 영국 런던         |
| 제2회  | 1891년 미국 워싱턴       | 제12회 | 1971년 미국 덴버         |
| 제3회  | 1901년 영국 런던        | 제13회 | 1976년 아일랜드 더블린      |
| 제4회  | 1911년 캐나다 토론토      | 제14회 | 1980년 미국 하와이        |
| 제5회  | 1921년 영국 런던        | 제15회 | 1986년 케냐 나이로비       |
| 제6회  | 1931년 미국 아틀란타      | 제16회 | 1991년 싱가포르          |
| 제7회  | 1947년 미국 스프링필드     | 제17회 | 1996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
| 제8회  | 1951년 영국 옥스퍼드      | 제18회 | 2001년 영국 브라이튼       |
| 제9회  | 1956년 미국 레이크 주날루스카 | 제19회 | 2006년 한국 서울         |
| 제10회 | 1961년 노르웨이 오슬로     |      |                     |

2006년 세계감리교대회 주요 일정표

|              |                                   |
|--------------|-----------------------------------|
| 2006. 7. 11. | 세계감리교 여선교회 대회/ 제주도                |
| 2006. 7. 16. | 세계감리교 남선교회 대회/정동제일교회              |
| 7. 20.       | 개회식/ 그리스도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
| 7. 21.       | 국가들간의 화해                          |
| 7. 22.       | 사회안에서의 화해/특강 :만델라 여사(전 남아공대통령영부인) |
| 7. 23.       | 교회안에서의 화해                         |
| 7. 24.       | 개인을 위한 화해/폐회식                     |

## 기본과제

1. 지방별, 권역별, 연회별 세계감리교대회 기념성회를 실시한다.
2. 연회에서 한반도 영적대각성 성회를 실시한다.

## 실천계획

- ▶연회 : ① 연회기간에 영적축제행사를 병행한다.  
② 세계감리교대회 기념성회를 개최한다.  
③ 2007년도 한반도 영적대각성 대회를 추진한다(추진단 구성)
- ▶지방 : ① 존 웨슬리 회심기념성회를 통하여 세계감리교대회를 위한 기도에 힘쓴다.  
② 2007년도 한반도 영적대각성 대회를 위한 기도와 참여에 힘쓴다.
- ▶교회 : ① 세계감리교대회 축하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에 힘쓴다.  
② 자원봉사에 힘쓴다.  
③ 재정적 지원에 힘쓴다.  
④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다.

# 2. 교회정책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소멸될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 보다도 감리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각된 조직체만으로 남아 있을까 염려된다.

— 존 웨슬리 —



행동목표 1

실효성 있는 미자립교회 자립정책

현 황

2005년도부터 감리교 본부에서는 미자립교회의 자립기반 마련 사업을 감리교 본부 10대 우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중에 있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5천 교회 100만성도” 운동과, 1991년부터 추진된 “7천 교회 200만성도” 운동 등의 감리교 선교정책과 담임목회 과정을 통한 목사안수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개척초기부터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교회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린 나머지 여건상 장기간 미자립교회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감리교 본부 정책자료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일년 경상비 결산 2천만원 이하의 미자립교회 빈도가 35%~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매년 50억원 이상의 규모로 미자립교회에 지원되고 있지만 미자립교회의 성장과 자립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한해에만 전국감리교회와 연회에서 미자립교회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56억7천만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해외선교비나 사회선교비에 비하면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비는 매우 적은 규모이다.

이는 미자립교회 문제를 범교단적으로 심층 대처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구제차원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낭비성 소비지출을 줄이고 미자립교회 지원예산을 교회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집중 운영하는 경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본부선교국에서 미자립교회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자립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차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목회자의 철저한 복음적인 열정과 감리교단적 사랑의 연대의식을 통한 관심과 배려가 충만할 때 모든 감리교회가 주님의 지체로서 고르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5천교회, 7천교회 운동 현황 (감리회 본부 선교국자료)

| 구 분   | 5000교회 100만 성도운동    | 7000교회 200만 성도운동        |
|-------|---------------------|-------------------------|
| 연 도   | 1976년 - 1985년       | 1991년 - 2000년           |
| 교회수   | 1,557개 → 2,985개     | 3,817개 → 4,975개         |
| 교인수   | 395,651명 → 943,546명 | 1,218,817명 → 1,377,954명 |
| 개척교회수 | 1,428개              | 1,158개                  |

2000년 ~ 2004년도 연도별 미자립교회 빈도 (감리회 본부 선교국 자료)

| 연 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교회수    | 4,975 | 5,041 | 5,337 | 5,386 | 5,489 |
| 미자립교회수 | 1,910 | 2,020 | 2,081 | 1,961 | 1,935 |
| 비 율    | 38.4% | 40.1% | 39.0% | 36.4% | 35.3% |

서울연회 미자립교회, 사회선교, 해외선교 연도별 지원 현황 (서울연회 회의록, 2000년~2004년)

| 구 분       | 2000년          | 2002년          | 2004년          |
|-----------|----------------|----------------|----------------|
| 미자립교회 지원비 | 1,584,180,000원 | 1,298,170,000원 | 1,645,280,000원 |
| 사회 선교 지원비 | 2,330,710,000원 | 1,571,810,000원 | 2,378,373,000원 |
| 해외 선교 지원비 | 1,581,860,000원 | 1,718,440,000원 | 1,715,719,000원 |
| 계         | 5,496,750,000원 | 4,588,420,000원 | 5,739,363,000원 |

2004년도 서울연회 미자립교회, 사회선교, 해외선교 지원현황 (상위 1~5위 교회)

| 구 분   | 정동제일교회      | 창천교회        | 열림교회        | 금란교회        | 아현교회        |
|-------|-------------|-------------|-------------|-------------|-------------|
| 미자립교회 | 366,700,000 | 17,500,000  | 120,000,000 | 7,200,000   | 28,600,000  |
| 사회선교  | 224,950,280 | 206,460,000 | 219,620,000 | 135,200,000 | 150,294,050 |
| 해외선교  | 70,383,986  | 142,520,000 | 5,600,000   | 125,520,000 | 82,134,550  |
| 총 계   | 662,034,266 | 366,480,000 | 345,220,000 | 267,920,000 | 261,028,600 |

1997년도 감리교회, 미자립교회, 사회선교비, 해외선교비 지원현황 (감리회 본부 선교국 자료)

| 미자립교회 선교비      | 사회선교지원금        | 해외선교비지원금       | 참 고                                           |
|----------------|----------------|----------------|-----------------------------------------------|
| 5,588,216,680원 | 2,171,106,000원 | 6,100,712,333원 | 300교회 중 · 상위 50교회 해외선교비 4,507,040,000원(약 74%) |

## 기본과제

1. 자립형 개척교회를 유도한다
2. 미자립교회를 절반으로 줄인다.

## 실천계획

- ▶연회 : ① 미자립교회 자립기금을 조성 운영한다.  
② 미자립교회 성장 전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지방 : ① 실패를 소상히 파악한다.  
② 미자립교회 주일을 정하고 입교인 특별헌금을 실시한다.  
③ 개척교회 인준시 당회 구성 기준을 준수한다.(장정규정)  
④ 지방내 미자립교회 자립을 위한 일을 최우선한다.  
⑤ 각 평신도 선교 연합회와 미자립교회를 결연한다.
- ▶교회 : ① 미자립교회 자립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한다.  
② 미자립교회와 후원 결연을 맺고 자립을 지도한다.



## 행동목표 2 정직하고 신뢰받는 교회행정

## 현 황

영적대각성운동의 결과는 행정적으로 정직하고 신뢰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한국감리교회는 1930년대 남북감리교회가 합동을 이루는 등 선교 120년 동안 단일교단으로서 결정적인 분열이 없을 정도로 다른 교단이 부러워하는 좋은 전통과 제도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감리교회는 수많은 갈등과 균열로 얼룩져 있다. 예를 들면 금권 불법 갑독선거로 인한 영적 지도력 상실, 교회재정 횡령, 교회지도자 불법행위 묵인, 장로에 대한 불법 치리, 교회재판제도의 불공정한 운영, 재판제도 불신에 따른 사회법정 시비, 본부임원 직무소홀로 인한 기본재산과 재정 손실,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교회 분규, 폐쇄적인 본부 행정으로 인한 불신감 팽배 등으로 그 원인은 교회의 질서와 통일성을 조정하는 교회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발단에는 감리교 행정의 책임자인 담임목사, 감리사, 감독, 본부임원 등의 정직하지 못한 행정행위가 숨어있는 것이다.

특히 본부의 행정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행정원칙이 이행되지 못하여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어 있다. 현장교회를 위한 서비스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단본부의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행정 내규를 개선하고 인사제도를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 즉 재단이사회, 총회실행부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업무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화하여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므로 행정책임자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행정행위를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본과제

1. 교리와 장정 준수
2. 정직한 감리교회 본부 행정
3. 공정한 재판제도 운영
4. 정직한 부담금 납부

## 실천계획

- ▶총회 : ① 중요한 회의록(감사보고서, 유지재단이사회의록, 총회실행부위원회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입법화하여 실시한다.  
 ③ 재산손실 초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청구한다.  
 ④ 교회 재산 손실을 초래한 목회자의 경우는 은급비 지급을 금지한다.  
 ⑤ 재판법 세미나를 2년마다 실시한다.  
 ⑥ 총회 재판 판례집을 발간 배포한다.  
 ⑦ 본부 행정내규를 개선한다.
- ▶연회 : ① 감독의 직무를 장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② 재판은 객관적 증거와 절차에 따르도록 감독한다.
- ▶지방 : 감리사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교회 : ① 교회 재정을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②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③ 교회재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처리할 때 반드시 장정절차를 준수한다.  
 ⑤ 각종 증명서를 정직하게 작성한다.
- ▶교인 : ① 정직하고 신뢰받는 교회행정을 위하여 기도한다.  
 ② 부조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힘쓴다.

### 행동목표 3

### 변화와 부흥을 실천하는 감리교 선교

## 현 황

1903년 원산의 감리교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부흥운동에 이르는 초기 부흥운동의 특징은 먼저 교회 지도자의 눈물의 회개이고, 둘째는 교인들의 회개-중생-성결에 이르는 영적 체험이며, 셋째는 교인들의 자기희생적 전도운동이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감리교회는 다섯 배로 부흥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근자에 감리교회는 5천교회 100만신도 운동, 7천교회 200만 신도 운동에 이어 300만 총력전도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교인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1.4%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미주선교연회 포함).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으로서 1990년 이 후 10년간 교회 침체현상이 두드러지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 침체의 원인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 등 외적인 요소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세속화,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권위 상실, 개교회 패권주의,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윤리의식 저하 등 내적 요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화와 부흥의 목표를 교인과 교회의 수치에 얽매려 하지 말고 영적인 각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감리교인들을 통하여 일어난 영적각성운동과 1903년 한국 감리교회 영적부흥운동의 유산을 이어받아 복음주의와 경건주의를 회복하므로 감리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1903년이후 한국교회 선교현황연도 (감리회 본부 선교국 자료)

| 연 도 | 1903년 | 1904년  | 1905년  | 1906년  | 1907년  | 1908년  | 1909년  | 1910년  |
|-----|-------|--------|--------|--------|--------|--------|--------|--------|
| 교회수 | 87    | 106    | 134    | 192    | 308    | 351    | 479    | 549    |
| 교인수 | 8050명 | 11708명 | 15525명 | 21018명 | 44611명 | 50145명 | 51401명 | 56990명 |



교인수 변동율(1998년~2003년) (감리회 본부 선교국 자료)

|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 교회학교 | 245,674   | 248,227   | 246,939   | 262,529   | 258,627   | 235,996   |
| 전년대비 | 1.1%      | 1.0%      | -0.5%     | 6.3%      | -1.5%     | -8.8%     |
| 전체교인 | 1,329,439 | 1,365,444 | 1,377,954 | 1,394,515 | 1,408,253 | 1,417,312 |
| 전년대비 | 0.5%      | 2.7%      | 0.9%      | 1.2%      | 1.0%      | 0.6%      |

## 기본과제

1. 300만 총력 전도운동의 지방별 현장화
2. 전도요원의 육성
3. 실효성있는 선교전략 수립

## 실천계획

- ▶연회 : ① 건강한 영적부흥운동을 이끈다.  
 ② 영적 능력과 말씀이 겸비된 부흥강사를 육성한다.  
 ③ 최우선 과제를 변화와 부흥운동에 집중한다.
- ▶지방 : ① 선교전략을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이를 평가한다.  
 ② 웨슬리 전도학교를 운영한다.  
 ③ 영적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을 병행 운영한다.  
 ④ 침체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집중 후원한다.  
 ⑤ 청소년, 어린이 대상 선교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 ▶교회 : ① 1.1.2. 전도운동으로 교회 배가에 힘쓴다.  
 ② 기도와 말씀운동으로 영적권위를 유지한다.
- ▶개인 : 전도와 봉사에 헌신한다.

## 행동목표 4

### 화해와 일치를 선도하는 감리교회

## 현 황

현재 전 세계는 문명간의 충돌로 인하여 전쟁과 테러로 얼룩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북 이데올로기, 동서갈등, 부빈격차, 남여노소 갈등, 노사 계층 등의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화해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감리교회는 언제나 교회연합운동과 사회적 관심사 한가운데에 있었다.

성령에 의한 영적각성운동의 결과는 인격적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과 개인자신과 세상과의 화해로 나타난다. 모든 평화의 능력은 성령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2006년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的主題도 “그리스도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감리교회는 영적대각성운동에 따른 화해와 일치를 향한 실천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4년도 전국 토지(사유지) 소유 양극화 현황(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 구 분  | 상위 1% | 상위 5% | 상위 20% | 참 고               |
|------|-------|-------|--------|-------------------|
| 소유비율 | 51.5% | 82.7% | 93.4%  | 토지보유자: 총인구의 28.7% |

한국교회 교파현황

| 교 파     | 교 파 수 | 교 파     | 교 파 수 |
|---------|-------|---------|-------|
| 감 리 교 회 | 1     | 성 공 회   | 1     |
| 장 로 교 회 | 84    | 복 음 교 회 | 2     |
| 구 세 군   | 1     | 그리스도교회  | 3     |
| 성 결 교 회 | 3     | 루 터 교 회 | 1     |
| 순 복 음   | 4     | 기 타     | 19    |
| 침 례 교 회 | 3     | 계       | 122   |

(자료: 2005년 한국교회 정보자료 연구소)

## 기본과제

1. 사회적 갈등과 대립 해소
2. 다양한 교회 연합 선교활동 전개

## 실천계획

- ▶연회 : ① 다양한 계층 초청 신년 하례회  
② 에큐메니칼 평신도 지도력 육성  
③ 학연, 지연에 의한 선거운동 안하기
- ▶지방 : ① 초교파 교회지도자 연합기도회 주관  
② 지역사회 연합 봉사활동
- ▶교회 : ① 이웃교회 부흥회 참석  
② 교회 울타리 낮추기  
③ 소외계층을 위한 위로회 갖기



## 행동목표 5

### 존경받는 감리교회 지도자

## 현 황

한국감리교회는 수 많은 민족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왔다. 구한말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 되기까지 감리교회는 민중의 피난처요 또한 민족 지도자의 산실이였다.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중의 아픔을 통감하며 감싸 안았고 수 많은 평신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므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계인사들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여러 형태의 비리와 부도덕한 면이 언론에 보도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다. 이 점에 있어서 감리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지도자는 교회 밖 사회에서도 존경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비난받는 일들이 많다. 금권선거로 당선된 교회지도자, 돈에 의한 선거행위, 제왕적으로 휘두르는 교권, 교회 현금 횡령, 교권 매관매직, 성적타락, 무차별적인 교인쟁탈, 부의 축척, 파벌조성 등 죄악된 일들이 버젓이 이행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영적권위와 존경심을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법은 약자에게만 엄하게 적용되고 지도층인사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영적대각성운동을 통하여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교세나 직위로서가 아니고 섬김의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다시금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살을 베고 손을 자르는 실천적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건국훈장 추서자(감리교인 독립유공자) 현황 (감리회 본부 광복 60주년 기념 예배자료집)

| 구 분  | 대한민국장 | 대통령장 | 독립장  | 애국장   | 미추서자 |
|------|-------|------|------|-------|------|
| 감리교인 | 10명   | 25명  | 43명  | 50명   | 197명 |
| 전 체  | 30명   | 93명  | 782명 | 3130명 |      |

그러나 감리교 지도자급 인사들 중에는 다수의 친일 행각자가 있음.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 감리교 | 장로교 | 천도교 | 불교 | 총   |
|-----|-----|-----|----|-----|
| 9명  | 7명  | 15명 | 2명 | 33명 |

기본과제

- 1.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2. 교회 안에 자정능력 방안을 모색한다.

실천계획

- ▶총회 : ① 총회 차원에서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② 감리교인 생활 지침서를 제정한다.  
③ 지도층 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 ▶개인 : ① 청렴결백한 생활을 한다.  
② 교회운영을 교회법에 따라 투명하고 정직하게 한다.  
③ 과시용 취임식을 하지 않는다.  
④ 교회선거에서 돈을 쓰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무자격 박사학위를 과시하지 않는다.  
⑥ 성직(교회 담임)을 돈으로 사고팔지 않는다.  
⑦ 담임목사직을 절대적으로 우상화하지 않는다 .  
⑧ 호화로운 차를 타지 않는다.  
⑨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  
⑩ 낭비성 해외여행을 자제한다.  
⑪ 불법처리 등 교권횡포를 하지 않는다.  
⑫ 소속목사들은 당연히 소속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3. 사회생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 존 웨슬리 -



행동목표 1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도덕적 사회

현 황

감리교회 신앙의 전통은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진리와 성서적 경건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적 성화, 사회적 성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는 일찍이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 하여 왔다.

나아가 1984년 한국감리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선언을 통하여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웨슬리 복음주의 신앙 전통을 확인하고 사회현실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인류의 평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선교사명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감리교회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적인 이상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여전히 휴전상태이다. 개인의 도덕과 사회윤리는 실종되어 성적문란, 술, 약물중독, 생명경시 풍조, 이기주의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정치는 부정부패의 극을 달리고 있고, 경제적인 빈부격차로 인하여 사회공동체가 균열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갈등과 대립으로 긴장되어 있고 이웃에 눈감아버린 향락과 소비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면서도 국제사회와 비교한 부정부패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선교 초기 기독교인이 0.01%도 안 되던 시절 돈을 주고 군수자리를 얻은 어느 양반이 교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부임하기를 소원했다는 일화처럼 감리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과 능력을 믿는다. 게다가 1919년 3.1운동 당시에 약661교회 51,630명의 감리교인들은 민족대표 33명 중 9명을 배출하는 등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감리교회 영적대각성운동이 개인적 성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화로 열매맺기 위하여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연도

| 연 도  | 점 수 | 순 위 | 조상대상 국가수 |
|------|-----|-----|----------|
| 1999 | 3.8 | 50위 | 99개국     |
| 2000 | 4.0 | 48위 | 101개국    |
| 2001 | 4.2 | 42위 | 91개국     |
| 2002 | 4.5 | 40위 | 102개국    |
| 2003 | 4.3 | 50위 | 133개국    |

자료출처 : 국제 투명성기구

기본과제

1.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 강구
2.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쓴다.

실천계획

- ▶총회 : 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리교회 입장을 정기적으로 밝힌다.  
② 교단내 사회문제 대책기구를 활성화 시킨다.  
③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정이나 불합리한 법개정 등에 힘쓴다.  
④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동기를 부여한다.
- ▶연회 : ① 사회적인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시정에 힘쓴다.  
② 정의 평화 구현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



행동목표 2  
사람의 영적가치가 존중되는 세상

현 황

인간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유한하고 왜소한 존재이다. 또한 인격적으로도 이기심이나 시기심이 가득하여 참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게다가 인간의 역사 속에는 잔인성과 사악함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 받은 영적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와 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사람의 영적가치를 귀하게 여기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조되었으며, 사람들 속에 이미 선행(先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는다.

사람의 존엄성은 영적가치에서 기인된다. 그러나 현대인은 영적차원을 소홀히 하고 물질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풍조에 물들어 가고 있다. 영적 가치를 상실한 나머지 사람은 욕망에 따라 물질의 노예, 생산의 수단, 이념의 노예로 전락되어 가는 것이다. 심지어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이다. 2004년 한 해에도 자살자 수가 11,523명으로 하루 평균 30명꼴로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리교인은 영적대각성운동을 통하여 영적가치에 반하여 비인간화하는 모든 세력에 반대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적가치가 실현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자살률 변동 추이(2000년~2005년)

| 연 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비율(10만명당) | 14.6 | 15.5 | 19.1 | 24   | 25.2 |

20~30대 미혼녀가 말하는 신랑감의 제1조건

| 순 위 | 경제력  | 성격   | 직업 | 가치관 | 외모, 학벌등 |
|-----|------|------|----|-----|---------|
| %   | 51.5 | 24.5 | 4  | 4   | 16      |

(자료출처 : 2004년 8월11일, 25일 서울신문)

기본과제

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2. 영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실천계획

- ▶연회 및 지방 : ① 지방별로 인권사각지대를 선정하고 보살핀다.  
② 영적가치를 알리는 영상물(책자)를 배포한다.  
③ 특수선교의 장을 마련한다.  
④ 다양한 형태의 쉼터(사회안전망)를 설치한다.



행동목표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끊임없는 배려

현 황

출애굽기의 계약법전과 신명기의 약자보호법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다(출애굽기 22:21-26, 신명기 14:28-29, 15:4, 12-14, 16:11, 16:18-20, ).

그리고 잠언 등 지혜말씀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교훈하고 있다(잠언 14:31, 19:17).

예수그리스도께서도 은밀한 구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다(마6:3-4).

처음 감리교회는 시장터 거리의 가난하고 무지한 민중을 향한 거리의 노방전도에서 시작되었고, 성령에 이끌려 민중을 위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으며, 옥에 갇힌 자, 병자, 가난한 자, 노동자, 어린이 등을 돕기 위한 훈련과 실천을 중요시 하였다. 감리교회 집회장소는 예배당이었고, 동시에 약국과 병원이었고, 또한 신용협동조합, 학교, 노동자 보호소, 그리고 상담소였다. 그래서 초기 감리교회 종교 강령 제 24조에는 “각 사람은 마땅히 자기 소유를 가지고 힘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너그럽게 구제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존 웨슬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한국 감리교회 초기 선교활동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사업으로 시작되어 복음을 가지고 고난 받는 민중 속으로 다가 갔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의 산업선교, 노동운동, 도시빈민운동, 나아가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권운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신은 1930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라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과 감리교 사회신경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성화를 구현하는 역사적 전통을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감리교회 사회사업 현황 (2005년 본부 정책 자료집)

| 구 분     | 개 소 | 구 분      | 개 소   |
|---------|-----|----------|-------|
| 지역사회복지관 | 25  | 의료시설     | 2     |
| 노인복지시설  | 32  | 야간학교     | 3     |
| 여성복지시설  | 12  | 외국인노동자시설 | 2     |
| 장애인복지시설 | 22  | 유아시설     | 160   |
| 청소년복지시설 | 14  | 노인대학     | 78    |
| 아동복지시설  | 6   | 공부방      | 85    |
| 푸드뱅크    | 5   | 어린이도서관   | 38    |
| 자원봉사기관  | 1   | 상담시설     | 5     |
| 자활후견기관  | 4   | 기타       | 2     |
| 노숙자시설   | 4   | 계        | 500개소 |

기본과제

- 1. 지방별로 특화된 사회참여 사업 전개
- 2. 사회선교를 향한 연합 활동 전개

실천계획

- 1. 지방별로 한가지 사회참여 사업을 추진한다.
- 2. 긴급구호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4. 사회사업 기금을 준비한다.
- 5. 웨슬리 사회봉사단을 조직 운영한다.



## 4. 가정생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 4절)

### 행동목표 1 성결하고 거룩한 가정

#### 현 황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더불어 축복하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부부간 신성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그리고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된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되고 노인들은 안식을 누리며 사회는 발전해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어 축복하셨던 것이다.

감리교회는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면서 가정과 성(性)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중한 제도이므로 가정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성(性)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1300만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음에도 가정문제와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문제, 이혼문제, 노인문제, 빈곤문제, 청소년문제 등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가정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문제의 핵심은 영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중시되는 경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 이혼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부간 성격차이 이외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특히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듯 가정에서도 하라'는 말이 있다. 교회에서는 영적천사이지만 가정에서는 마귀가 되어버리는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가정의 행복은 성결과 거룩의 영적가치에 근거하고 이를 실천할 때 꽃피운다.

그러므로 영적대각성운동은 성결하고 거룩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교회와 사회의 문제가 사라지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혼인 및 이혼 건수

| 구 분   | 1994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혼인건수  | 393,121 | 320,063 | 306,573 | 304,932 | 310,944 |
| 이혼건수  | 65,015  | 119,982 | 145,324 | 167,096 | 139,365 |
| 비율(%) | 16.5%   | 37.5%   | 47.7%   | 54.7%   | 44.8%   |

(자료 : 통계청)

기본과제

- 1. 가정 예배 실천
- 2. 가족들이 교회생활 함께 하기

실천계획

- 1. 가정예배를 실천한다.
- 2.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한다.
- 3. 가족들이 교회생활을 함께한다.
- 4. 결혼서약을 준수한다.
- 5. 자녀를 유아세례 받게 한다.
- 6. 부모들은 술선하여 금주 금연하고 노름을 멀리한다.
- 7.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다.
- 8.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결혼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 9. 가정과 성, 순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동목표 2  
남녀노소의 가치가 존중되는 가정

현 황

창세기에 인간창조 이야기는 남녀 양성의 존재가치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이다. 특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형상이란 의미는 우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 여가 모두 사람됨의 근거를 준엄한 하나님의 형상에 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스림의 의미인데, 남, 여는 공히 하나님의 청지기와 동역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데 역할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돕는 배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양성평등의 가르침으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또한 성경은 어린이와 노인 등 모든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며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셨고, 구약성서의 법전과 지혜말씀에는 노인의 존엄한 지위와 인생의 경륜을 존경하라는 가르침이 많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아태아를 함부로 죽인 나머지 성비의 균형이 깨지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조차 여성의 지위를 차별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노인의 위치가 흔들리므로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정은 남녀 노소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최후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대각성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남녀 노소의 가치를 가정에서부터 실현하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여 출생 성비 현황(여아 100명당 남아 수)

| 연 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출생성비 | 110.2 | 109.0 | 110.0 | 108.7 | 108.2 |

(자료 : 통계청)

연령 3계층별 인구 추이 : 1970년~2030년 (통계청/2005한국사회지표)

|      | 인 구 (천명) |        |        |        | 구성비 (%) |        |       |
|------|----------|--------|--------|--------|---------|--------|-------|
|      | 계        | 0~14세  | 15~64세 | 65세이상  | 0~14세   | 15~64세 | 65세이상 |
| 1970 | 32,241   | 13,709 | 17,540 | 991    | 42.5    | 54.4   | 3.1   |
| 1980 | 38,124   | 12,951 | 23,717 | 1,456  | 34.0    | 62.2   | 3.8   |
| 1990 | 42,869   | 10,974 | 29,701 | 2,195  | 25.6    | 69.3   | 5.1   |
| 2000 | 47,008   | 9,911  | 33,702 | 3,395  | 21.1    | 71.7   | 7.2   |
| 2005 | 48,294   | 9,240  | 34,671 | 4,383  | 19.1    | 71.8   | 9.1   |
| 2017 | 49,906   | 6,594  | 36,408 | 6,904  | 13.2    | 73.0   | 13.8  |
| 2018 | 49,934   | 6,495  | 36,276 | 7,162  | 13.0    | 72.6   | 14.3  |
| 2026 | 49,771   | 5,796  | 33,618 | 10,357 | 11.6    | 67.5   | 20.8  |
| 2030 | 49,329   | 5,538  | 31,892 | 11,899 | 11.2    | 64.7   | 24.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2005.1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 (남성=100.0)

| 년 도 | 1980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
| 비 율 | 44.5 | 55.0 | 64.8 | 65.1 | 64.8 | 64.2 |

(자료 : 통계청)

## 기본과제

1. 가족구성원이 역할 분담하여 가사 돌보기
2. 노부모 돌보기

## 실천계획

1. 여아 낙태를 하지 않는다.
2. 가정의 대소사를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
3. 집안일을 분담하고 돕는다.
4. 가족끼리의 식사시간을 많이 갖는다.
5. 가정별로 규범을 만들어 실천한다.
6. 노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한다.
7. 결손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원 활동을 한다.
8. 가족회의를 활성화한다.

### 행동목표 3

### 나누고 섬기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가정

## 현 황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며 동시에 가치교육의 산실이다. 옛날부터 기독교 가정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부모는 교사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정에서 실현되고 가정에서부터 확산되었다. 특히 가정에서 기독교 가치관이 얼마나 실천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나누고 섬기기를 가르치셨고 또한 나누고 섬기며 사셨던 것이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마가복음 10: 45)”,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누가복음 22:27절)”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셨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창녀, 죄인 등 그 시대의 소외계층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베풀었다.

한국 선교초기 예수를 믿고 영적변화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흠친 돈을 되돌려 주었고, 남을 속여서 모은 재산을 다 처분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고향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마다하고 전도자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요즈음 물질 만능주의 물결 속에 영적가치관이 표류하고 있다. 재산상속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며, 교회 안에서도 폐쇄적인 재정운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영적권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도 족벌체제운영, 공금횡령, 비자금, 부동산투기, 뇌물공여 등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나눔의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가정은 영적대각성운동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고 배려하는 일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재산상속도 작은 양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환원하여야 한다. 음식은 자기만 먹고 배부르면 단지 음식이 되지만, 나누면 정신이 된다는 말이 있다. 부와 권력이나 지식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잠깐이지만 나누어 쓰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가게 기부 현황 (2001년도)

| 구 분 | 참여가구  | 가계소득대비기부금액 |
|-----|-------|------------|
| 한 국 | 52.3% | 0.35%      |
| 미 국 | 86%   | 3.1%       |

이웃돕기 성금 기탁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공공기관      | 종교 및 사회단체   | 기업체         | 개인 및 기타     | 총 계          |
|------|-----------|-------------|-------------|-------------|--------------|
| 2001 | 2,762(7%) | 5,942(15%)  | 21,722(55%) | 9,225(23%)  | 39,651(100%) |
| 2002 | 3,672(6%) | 11,163(18%) | 34,346(54%) | 14,076(22%) | 63,259(100%) |

(자료 :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념 심포지움)

단체별 성공적인 나눔 프로그램

| 단 체 명       | 성공적 나눔 프로그램                                        | 비 고                                                            |
|-------------|----------------------------------------------------|----------------------------------------------------------------|
| 한국복지재단      | 결연사업 모금, 사랑의 서포터즈                                  | 81년부터 저금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기부 생활화 유도                               |
| 월드비전        | 기아체험 24시                                           |                                                                |
| 한국기아대책기구    | 국내외 어린이 결연 프로그램                                    |                                                                |
| 굿네이버스       | 사랑의 굿기운동                                           | 여러 회를 거치면서 참여단체의 의무적 참여가 활성화 됨                                 |
| 사랑의 집짓기 연합회 | 기업연계 프로그램                                          | 현금후원 + 건축자원봉사 + 현물후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사랑 캠페인                                            | 작업장 모금함을 도입해 일상생활 속의 실천 유도(소액다수)                               |
| 한국여성재단      | 100인 기부 릴레이<br>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가게 캠페인, 새생명, 새희망 캠페인 |                                                                |
| 아이들과 미래     | 한끼 지렛대 캠페인                                         |                                                                |
| 아름다운 재단     | 1% 나눔 운동                                           | 기부는 돈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재능, 끼, 유머 등까지 나눔을 확장시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       |
| 환경재단        | 만분(萬分)클럽                                           | 여러 기업이 모금에 참여함으로 부담을 줄이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 을 고취시키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

기본과제

- 1. 재산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기
- 2. 이웃되어 주는 생활 실천하기

실천계획

- 1.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 2. 이웃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
- 3.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다.
- 4.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 5. 소비절약(아껴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쓰자)
- 6. 자원절약(물, 기름, 전기 등)
- 7. 폐품이용(일회용품 덜 쓰기, 중고품 교환)
- 8.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 하기
- 9.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다.



# 5. 문화교육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행동목표 1  
영적가치를 구현하는 문화 창조

## 현 황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 하셨으므로 모든 참된 문화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므로 모든 문화적 활동의 주인공이다.

인간의 문화적 책임은 땅위에 사는 날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 주어진다. 사람이 삶을 실현해 나가는데 문화적 활동과 노력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문화에서 세상 중심의 타락한 문화로 변질되어간 것이다.

성경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 임을 보시고서 땅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사람뿐 아니라 온갖 짐승까지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는 다름 아닌 인간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행위인 것이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에서도 보듯, 세상 중심의 타락한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아래 있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 현실을 볼 때, 산업화 과정을 통한 물질적 풍요의 결과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온갖 종류의 세속문화가 넘쳐나고 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의 형태는 또한 그 시대의 종교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척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의 문화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제도 속에서 자기방어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타락한 문화를 추방하고 영적가치를 구현하는 문화변혁의 주체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성폭력, 어린이 대상범죄 발생현황

| 구 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
| 강간      | 4,844 | 5,580 | 5,627 | 5,978 | 6,359 |
| 어린이대상범죄 | 1,076 | 1,164 | 1,075 | 953   | 849   |

( 자료 : 경찰청 )

기본과제

- 1. 건전한 청소년 문화운동 지원
- 2. 향락퇴폐 문화를 퇴조시킨다.

실천계획

- ① 지방회(연회)는 성결한 생활을 위한 지침서를 만든다.
- ② 지역별 청소년 유해 시설을 파악한다.
- ③ 유해시설 추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④ 매년 한가지 우선 사업을 정하여 집중한다.
- ⑤ 교회는 건전한 지역 문화단체를 지원 육성한다.
- ⑥ 개인은 건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한다.
- ⑦ 오락성, 선정적인 문화를 배격하고 영적문화 창조에 힘쓴다.
- ⑧ 지역사회 문화행사시 교회를 활용토록 장소를 제공한다.



행동목표 2  
영적가치를 심어주는 교육

현 황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 열기는 세계제일이다 그만큼 사적 교육비도 엄청나다. 그럼에도 교육 부재니 공교육 붕괴니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사회윤리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리교회는 일찍부터 뜨거운 내적체험과 경건의 규칙을 따르는 생활훈련과 성결한 생활실천을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교육기관을 세우고 섬겼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교육과 성인교육을 떠맡았다. 그 결과 감리교인에게는 정직한 메도디스트(Honest Methodist)라는 자랑스런 칭호가 붙여졌다.

한국감리교회는 복음선교와 더불어 교육 문화사업을 전개하므로 교육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감리교회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사람가운데는 유관순, 서재필, 이준 열사 등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인재가 많았다.

교회는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과 모범이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영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풍기문란사범 단속처리 상황

| 구 분  | 계       | 단 속      |          |          |           |       |          |         | 처 리 |           |          |
|------|---------|----------|----------|----------|-----------|-------|----------|---------|-----|-----------|----------|
|      |         | 음화<br>소지 | 남녀<br>혼숙 | 음주<br>흡현 | 환각제<br>소지 | 폭력    | 흥기<br>소지 | 기타      | 즉심  | 보호자<br>인계 | 이첩<br>통보 |
| 2000 | 391,465 | 482      | 1089     | 126,984  | 436       | 48292 | 423      | 312,759 | 261 | 383,753   | 7451     |
| 2001 | 239,125 | 1783     | 1114     | 63141    | 355       | 52620 | 350      | 119,762 | 742 | 235,799   | 2584     |

( 자료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3년도 청소년 보호백서 )



## 기본과제

1. 청소년 영성 교육 자료집을 발간한다.
2. 영적가치를 심어주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실천계획

1. 지방회(연회)는 정기적인 사회적 명사 포럼을 주관한다.
2. 부모교육, 청소년 교육에 있어 영적가치관 형성의 장을 제공한다.
3. 청소년을 위한 손쉬운 영성교육 자료집을 발간한다.
4. 교회(가정)는 감리교회(존 웨슬리) 신앙 규칙을 교육한다.(부록참조)  
( 웨슬리의 신앙규칙, 연합속회 총칙 등)



## 부록 : 웨슬리의 신앙규칙

### 1. 수산나의 가정교육을 위한 규칙

- 어릴 때부터 취침, 기상, 젖 먹는 시간, 노는 시간을 정해 놓고 철저히 지키게 한다
- 잘못된 의지를 일찍부터 꺾어 놓기 위하여,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체벌을 가한다.
- 체벌을 받을 때 소리 내어 울지 못하게 하고, 울면 체벌을 더 가중시킨다.
-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
- 체벌을 가한 후에는 그 이유를 깨닫게 설명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한다.
- 성경을 항상 읽게 한다. 아침에는 시편과 구약성경을 읽고, 낮에는 시편과 신약성경을 읽게 한다.
-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 서로 짝을 지어 큰아이가 어린 동생을 돌보도록 한다.
-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게 하고, 싸움을 하지 않도록 도덕훈련을 철저히 한다.
- 일 주일에 한번씩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을 한다.

### 2. 신성구락부(Holy Club) 규칙

-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는가?
-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았는가?
- 낮선 사람을 대할 때 참 신앙을 설명해 주었는가?
- 공중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 놓은 적이 있었는가?
-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성실하게 충고한 적이 있었는가?
- 이웃 사랑을 행하여 진정 함께 웃으면서 기뻐해 본 일이 있었는가?
- 선한 뜻이 사람들을 향한 행동의 원칙이 되었는가?

### 3. 성결한 생활 규칙

-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라.
- 맡은 일을 부지런하게 완수하라.
-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데 드러라.
- 모든 날을 주일처럼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라.
- 술 잘 먹는 사람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 호기심을 일으키는 일과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팔지 말라.
-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은 즉시 고쳐라.
- 하루 한 시간 이상씩 깊이 생각하는 일에 바쳐라.
- 행동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만한 일을 삼가라.
- 유익 없는 이야기는 듣지 말고 좋지 못한 책은 읽지 말라.
-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남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
- 불필요한 교제는 피하고 유익한 교제를 도모하라.
-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어떤 고기도 함부로 먹지 말라.
-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로 버리고, 좋은 생각만 가져라.
-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 어떤 일이나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 어떤 경우에도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의무 이상을 행하도록 하라.
- 언제나 목적을 잃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맞추어라.
-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여자라도 함부로 교제하지 말라.
-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그것을 단연코 즉시 물리쳐라.

#### 4. 웨슬리의 건강규칙

- 꾸준한 운동과 맑은 공기를 마신다.
- 밤잠을 거르지 않는다.
- 언제나 피곤하면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잔다.
-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 매일 새벽 5시에 설교를 한다.
-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는 취미를 갖는다.

#### 5. 찬송을 부르는 규칙

- 악보에 있는 것을 고치거나 변경하지 말고 정확하게 불러라.
- 소절을 생략하지 말고 모두 불러라.
- 될 수 있는 대로 혼자 부르지 말고 회중과 함께 불러라.
- 줄면서 생각 없이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불러라.
- 남이 들을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러라.
-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회중보다 튀어 나오지 않도록 겸손하게 불러라.
- 빠르기를 잘 맞추어서 불러라.

-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라.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불러라.

#### 6. 연합속회 총칙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고금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세계에 산재한 그리스도교회 각 파가 있어 왔다. 이 정신과 교리가 새 형식으로 나타나서 아래와 같이 성립되었다.

"1729년에 영국에 청년 두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결치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였다. 1737년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성결케 되기 전에 먼저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될 것을 깨달았으나 성결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시키사 나아가서 성결한 백성들을 일으키게 하시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기원이니 이 교회의 창립자요 영국교회의 장로요, 옥스포드 대학 학사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두 분이 친히 기록한 말씀이다. 그들의 전도사업은 특별한 하나님의 감화력과 일치되어 다른 목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찬조하게 되었고 잉글랜드와 스코트랜드, 아일랜드를 통하여 각 곳에서 연합속회가 조직되고 사람들이 경건한 권능을 얻고자 힘쓰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연합속회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

이 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뿐이니 곧 "장래의 노하심을 피하고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다. 이 뜻이 마음 가운데 작정된 이는 행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회에 계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뜻을 표명할지니

제 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

-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게 쓰는 것과,
- 늘 하는 사업이나 매매하는 일로 주일을 범하는 것과,
- 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밖에 술을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
- 싸움과 시비와 떠들음과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과,
-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나,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과,
- 매매할 때에 여러 말 하는 것과,
- 세를 바치지 아니한 물품을 매매하는 것과,
- 법 밖의 중변으로 돈을 꾸고 받는 것과,
-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무익한 말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관리와 목사를 비방하는 것과,
- 내가 받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는 것과,

## [영적대각성운동 실천계획서]

-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니 곧 금으로 만든 패물과 사치한 옷을 입는 것과,
-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오락을 취하는 것과,
- 하나님을 알기와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노래를 부르거나 서적을 읽는 것과,
- 자기만 생각하는 것과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과
- 땅 위에 재물을 쌓아 두는 것과,
- 값을 수 없을 듯한 돈을 꾸는 것과 혹 값을 수 없을 듯한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것 들이다.

제 2는 선을 행하며 능력을 따라 각양 자비함을 베풀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각양 선을 행할 것이다.

- 그 예를 들면 사람의 육신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주린 이에게 먹을것을 주며 벗은 이에게 옷을 주며 병든 이와 옥에 갇힌 이를 찾고 도와 줄 것과,
-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모든 상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경계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선을 행할 것이 없다”는 광범한 이론을 배격할 것과
- 특별히 교회의 신자에게와 또한 신자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선을 행할 것이요,
-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들을 고용하고 서로 사고 팔며 서로 생계를 도와 줄 것이니 세상도 동료를 사랑하거든 우리는 더 사랑하여야 할 것과,
-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하며 절용하여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할 것과
- 참음으로써 앞에 있는 달음박질 마당에 달리며 자기를 이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곤욕을 담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여김을 달게 받고 주로 인하여 모든 거짓말로 비방 받을 줄 알 것이다.

제 3은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삼가 지킬 것이다.

- 하나님께 공중 예배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과
- 주의 만찬과 가족기도와 개인기도와 성경공부와 금식과 절식하는 것들이다. 위에 기재한 것은 우리의 총칙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흡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 성경에서 참되게 깨달은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만일 우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습 관적으로 어기면 그 영혼을 돌아보는 책임이 있는 이에게 알게 할 것이다.
- 우리가 그 실행의 그릇된 것을 훈계하고 또 얼마 동안 참아 지날 것이나 그 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이를 우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 상 직무를 다한 것이 된다.

## 감리교회와 영적 대각성운동

영적대각성운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적변화와 부흥운동이다. 성경 속에서는 오순절 성령체험을 통한 놀라운 영적체험과 부흥의 역사로 증거되고 있다. 교회사적으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교리에서 시작되어 17세기 야콥 스페너, 헤르만 프랑케, 진젠도르프 등에 의하여 영적 거듭남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의 영적체험에 의한 부흥운동으로 꽃피어 갔다.

그러므로 감리교회는 영적대각성운동의 산물인 것이다. 처음 감리교회는 철저한 회개와 내적인 체험을 중시하였고, 복음전도,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속회, 간증, 찬양, 헌신, 사회적 책임 등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결과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났던 내적 체험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꽃피운 것은 다름 아닌 감리교인들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경건주의 운동을 영적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 Movement)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대각성운동의 결과 기존의 청교도 중심의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에 비하여 1/10도 안 되었던 감리교회는 기존의 교회보다 여러 배로 부흥성장했던 것이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120년 전, 미국의 제2차 영적대각성운동의 결과 한국 선교에 투신한 아펜젤러, 맥클레이, 스크렌튼, 리드 등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감리교회 역시 영적대각성운동의 산물이다.

더구나 100년 전 한국 선교 초기 역사에서 일어났던 원산 평양의 영적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의 감리교 하디 선교사의 영적체험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다. 하디선교사의 영적교만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의 눈물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운동으로 불타올랐던 것이다. 이 결과 감리교회는 1903년부터 1910년 사이에 7배의 부흥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감리교회는 교회사속에서 영적대각성운동의 자랑스런 유산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대각성운동은 감리교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며 이 운동을 통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사명 또한 성령께서 한국 감리교회에 주신 것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영적대각성운동위원회-





